

잊지 말고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 '19.5.15.(수) ~ 6.13.(목)

신청기간 내 신청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하기

재학생이 아니어도 1차 신청 시, 등록금 납부액 우선감면으로 부담 완화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가능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누르면 1학기 소득구간을 2학기에 동일하게 활용 가능!

'19-2학기 1차 신청

신청기간
'19.5.15.(수) 9시 ~ 6.13.(목)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19.5.15.(수) 9시 ~ 6.18.(화) 18시

신청대상

국내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 신청 익일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미래교육 2019년 6월 특별기획 미래 성장의 열쇠, 대학 학술생태계

100부



행복한 교육

Vol. 443. 2019. 6.



미래 성장의 열쇠, 대학 학술생태계 아셈 교육장관회의 성과와 과제 늘어나는 학교폭력, 해결책은?

Story

JUNE 2019 Vol. 443

20

24

32

12



COVER STORY

부산에 올 3월, 첫 공립형 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교장 정현섭)가 문을 열었다. 학생들의 돌봄과 치유 그리고 배움, 성장에 초점을 두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데, 실용음악과 밴드부 활동도 그중 하나다. 방음시설이 갖춰진 음악실에서 송정중 1학년 밴드부 아이들이 활짝 미소를 짓고 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4

Contents

특별기획

- 02 미래 성장의 열쇠, 대학 학생생태계
- 04 대학 학생생태계: 진단과 나아갈 방향
- 08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인문사회' 자생력 키운다
- 12 대학 이공기초학문 연구 기지로 키운다
- 16 대학 생태계의 오염 원인은 '학생의 소외'

현장이야기

- 20 꿈이 영그는 현장 부산 첫 공립 대안학교 '송정중학교'
- 24 삶과 교육 심학경 경기 당촌초등학교 교장
- 28 우리교실, 프로젝트 김지숙 교사의 평화·통일교육
- 32 아하! 진로체험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 34 창업공방 이승우 119레오 대표
- 36 명예기자 리포트 시간선택제 교사, 임용고시생 적체의 대안이 될 순 없을까 외
- 41 선생님 연구중 연리지(連理枝) 인성교육연구회
- 42 초점 수학여행에서 만난 산불, 위기 탈출 비결은?

정책이야기

- 44 정책N전망 아셈교육장관회의 성과와 과제
- 46 이슈 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
- 48 대학교육 대학 산학협력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 50 교육부 JOB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하는 '특수교육정책과'
- 53 정책 토크 늘어나는 학교폭력, 해결책은?
- 59 꽃 피는 교육자치 수학 시간에 토론을 한다고? 외

정보이야기

- 62 교육포커스 교육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교육서비스의 필요성과 도입 전망 외
- 66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68 아이의 다락방 화장하는 아이
- 70 교사상담실 잠들지 않는 교실, 꼭 만들고 싶어요
- 72 이야기 인문학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의 광기, 그리고 상처의 치유
- 74 일상의 침표 달과 꽃의 도시, 남원
- 78 뉴스 브리핑 누리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외
- 80 행복 게시판

미래 성장의 열쇠, 대학 학술생태계

1. 대학 학술생태계: 진단과 나아갈 방향
2.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인문사회' 자생력 키운다
3. 대학부설연구소·핵심연구지원센터
대학 이공기초학문 연구 기지로 키운다
4. 왜! 스스로 연구자 정체성 훼손하나,
대학 생태계의 오염 원인은 '학생의 소외'

학문과 학술, 연구 주체의 다양성과 공생을 통한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유지하는 길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연구 불균형과 연구자의 연구 부정, 부실한 학술 활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대학 학술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2019년 국가 R&D 예산은 20조 원 규모로 이중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5%에 해당하는 3천억 원 수준이다. 또한 대학원생 규모를 1980년대와 비교하면 2018년 현재 10배가량 늘었으며, 특히 박사과정생은 7만 5천 명 수준으로 20배가량 증가했다. 학술생태계가 변화하는 동안 60대 이상의 전임교원의 늘어난 반면, 역으로 30대 전임교원은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연구윤리의 문제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연구 부정과 부실한 학술 활동 역시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서는 대학 학술생태계를 진단하고,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 대학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대학 학술생태계: 진단과 나아갈 방향

생태계(ecosystem)란 특정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군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건을 망라한 복합체계를 지칭하는 생물학적 용어이다. 주로 자연환경의 범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됐지만 근래에는 인간사회에도 적용하여 기업생태계, 연구생태계, 학술생태계와 같은 용어와 개념으로 확장 사용되고 있다.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체가 균형을 유지하고,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생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인간사회의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술’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과 기술을 아우르는데, 우리나라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 발전시키고, 그 지식을 발표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학술생태계는 모든 학문 분야의 탐구, 지식생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구성원과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여건들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학은 이러한 학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학술생태계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 학술생태계를 중심으로 구성원과 학술 활동, 지원 여건 등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학 학술생태계의 구성원과 연구활동 현황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은 총 74,190명(2년제 대학 13,940명)으로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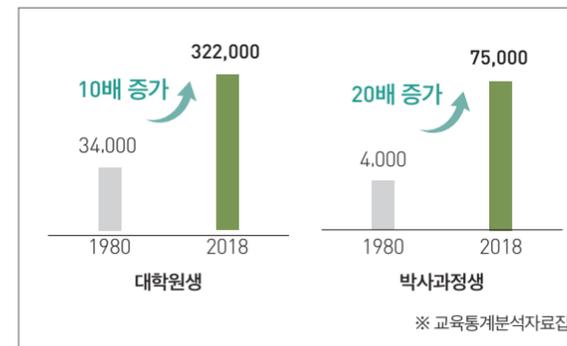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조교수 이상 직급으로 임용되어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수들을 지칭한다.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 국립대 기금교수들도 전임교원으로 분류된다. 이중 여성교수 비율은 23.6%이고 사립대학의 경우 25%인데 비해 국공립대학은 15.4%로 현저히 떨어진다. 전임교원의 57%인 42,000명 정도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원보다 실태 파악이 더 어려운데 대학교육연구소 통계 기준 2018년 현재 4년제 대학의 비전임교원은 시간강사 51,200명을 포함해 95,520명으로 조사된다. 전임교원보다 약 2만 명 정도 많은 숫자이다. 비전임교원은 강의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등 여러 직명으로 불리며, 전일제와 비전일제 교원이 섞여 있다. 대학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직군과 포스트닥을 지칭하는 연수연구원 등 비전임연구원들은 주로 전일제 근무자들이 많다. 비전임교원에 비해 비전임연구원의 정확한 통계는 현재 나와 있지 않다. 비전임교원/연구원은 전임교원과 함께 학술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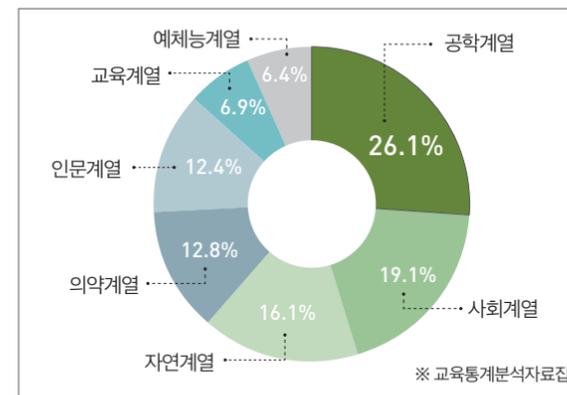
대학원생은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1980년대 34,000명 수준에서 2018년 현재 322,000명 수준으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특히 박사과정생은 1980년대 4,000명 수준에서 2018년 현재 75,000명 수준으로 약 20배 증가

하였는데, 여학생 비율은 현재 약 44% 정도이다. 박사과정은 전공별로 공학계열(26.1%), 사회계열(19.1%), 자연계열(16.1%), 의약계열(12.8%), 인문계열(12.4%), 교육계열(6.9%), 예체능계열(6.4%) 등으로 집계된다.

[그림1] 대학원생(박사과정) 현황 단위: 명



[그림2] 박사과정 전공별 현황(2018년 기준)



이공계·인문사회계열 연구 균형 맞게 확대 여성·신진연구자 등 포용적 연구지원 확대 학제 간 실질적인 융합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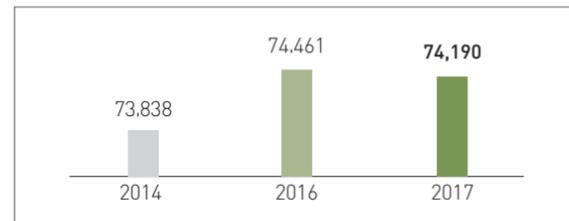
이들 구성원들의 학술활동을 뒷받침하는 연구비를 보면, 2017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한 연구개발비는 약 4조 6,000억 원이며, 여기에 민간재원을 합하면 약 6조 원이 대학의 연구개발비로 지원되었다. 이중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의 연구와 학술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3조 2,400억 원 규모이다. 계열별로는 이공계열에 88.3%, 인문사회계열에 11.7%가 연구개발비로 집행되었다. 1인당 연구비 규모를 비교하면 이공계열 남성교수는 1인당 평균 1.8개의 과제를 약 1억 4,000만 원의 연구비로, 여성교수는 1인당 평균 1.1개의 과제를 약 6,000만 원의 연구비로 수행하였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남성교수가 1인당 평균 0.9개의 과제를 2,300만 원의 연구비로, 여성교수는 1인당 평균 0.7개의 과제를 1,300만 원의 연구비로 수행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성교수의 1인당 연구비가 계열을 불문하고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 학술생태계의 변화와 위기 요인

지난 몇 년간 대학 학술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불안정 요인으로는 노후화, 일자리 문제, 연구윤리를 들 수 있다. 우선 대학 학술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연구자, 즉 전임교원의 감소와 함께 노후화 현상이 뚜렷하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은 2014년 73,838명에서 2016년 74,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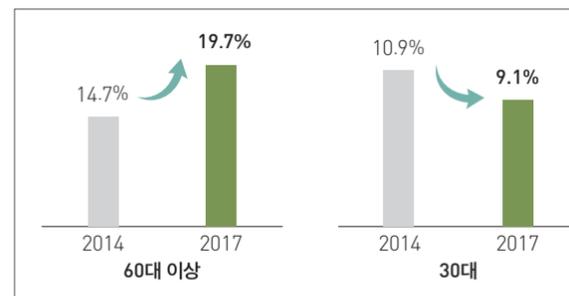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74,190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숫자의 증감보다 더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연령대별, 성별 변화 추세이다.

[그림3]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수 단위: 명



실제 60대 이상 비중은 2014년 14.7%에서 2017년 19.7%로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30대 비중은 10.9%에서 9.1%로 감소해 전임교원의 노후화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여성 전임교원은 21.6%에서 23.6%로 늘어나고, 30~40대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것은 국가적 고용평등 정책으로 2010년대 이후 여성 전임교원 채용이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의 비중이 지속증가한 상황은 조만간 퇴임자를 대체할 신입교원의 세대교체가 전국적으로 큰 규모로 일어날 상황을 예시한다.

[그림4]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연령대 비교



전임교원 중 30대 교원의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기간과 학위취득 후 고용될 때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에 있다.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13,882명의 박사학위자가 배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이공계열 박사학위자가 8,200명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다. 이들 중 직장에 적을 두지 않고 전일제로 학업을 수행한 사람이 약 4,800명인데, 매년 1,800명 정도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자와 연구비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도 그 범위와 내용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연구 부정과 부실한 학술활동 역시 건강한 학술생태계의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 논문표절, 자녀를 포함한 부당한 저자표시, 부실학회 참석과 부실논문 발표,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등은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학 학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학문수준, 대학에 대한 구성원들과 외부사회의 기대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수준의 윤리기준과 괴리가 여전히 큰 것이 사실이다.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위한 제언

대학의 학술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에 대한 투자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대학 지원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9% 수준으로 OECD 평균(17.7%)의 절반 정도이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기초연구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2022년까지 2.5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현재 정부의 기초연구확대

는 이공계 기초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인문사회계열 연구가 균형 맞게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 공동, 집단연구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아울러 BK사업 등 대학 재정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대학 학술생태계에 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포용적 연구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의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그룹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잡힌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 신진, 지역연구자와 외국인 연구자들에 대한 포용적 지원이 필요하며,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와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안정된 환경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제 간 실질적 융합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은 학과 간 장벽이 여전히 높고,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네트워크가 출신 학과나 전공의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 방법 등을 통합해야 새로운 과학적 발전과 혁신이 일어난다. 선진국의 연구지원기관들은 거의 예외없이 학제 간 융합연구에서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찾고 있고, 이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부처 사업을 비롯한 학제 간 공동연구를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공동작업과 협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의 사회경제적 기여 확대이다. 그동안 대학의 학술활동은 마치 그 목적이 논문이나 특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 왜곡되어 왔다. 논문이나 특허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논문과 특허를 바탕으로 지식의 진보와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지에 그 의

미가 있다. 최근에는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측정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등 연구선진국들에서 한층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대학의 학술활동이 여러 경로와 영역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술활동의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서 설명한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제도화하여도 결국 윤리적 바탕 위에서 이것들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불안정한 학술생태계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도적 장치나 풍족한 지원에 앞서 건전한 연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튼튼한 토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다양성과 공생의 학술생태계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자연생태계의 핵심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공생이다. 다양한 대학 학술 활동과 연구 주체가 어우러져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면 대학 학술생태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생태계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의 연구실 문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교수와 학생, 전임과 비전임 연구자들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공생하는 바람직한 관계가 보통의 표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여성과 신진, 외국인 연구자들이 보이지 않는 편견과 전통적 편향에 발목을 잡혀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양성 유지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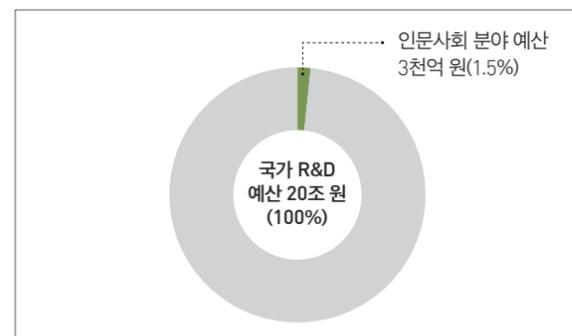
학문과 학술, 연구 주체의 다양성과 공생을 통해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유지하는 길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떠받칠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㉞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인문사회’ 자생력 키운다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에 앞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과연 누구 책임인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왔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술적 제도적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사회·기술적 도전에 대비하여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혁신적 포용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술 발전에 인간이 따라가는 사고에서 이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학적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림1] 국가 R&D 예산 중 인문사회 분야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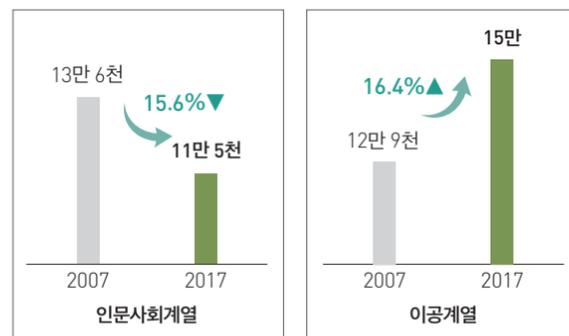


인문사회 분야 사회적 인정과 지원 부족

인문사회과학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며, 2019 국가 R&D 예산 20조 원 중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5%에 해당하는 3천억 원 수준이다<그림1 참조>.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 정부 연구위원회 예산의 9% 이상을 인문사회과학에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립과학재단·국립인문기금 연구 지원 예산의 7%를 인문사회과학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인문학 진흥정책 이래 인문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높아졌으나 학과구조조정 등으로 대학 내 인문학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계열별 학

[그림2]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변화('07~'17) 단위:명



과 수 변화('07~'17)를 살펴보면 10년간 자연계열 학과가 11.9% 증가할 때 인문계열 학과는 14.2%로 줄었다. 또 4년제 대학의 이공계열의 입학정원이 10년간 12만 9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16.4% 증가하는 동안, 인문사회계열은 13만 6천 명에서 11만 5천 명으로 15.6% 감소했다<그림2 참조>.

특히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이공 분야에 비해 인문사회 박사급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인문사회 분야의 위축은 학문후속세대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학문의 위기, 학술생태계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자립 가능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이에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인문사회 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①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진출 경로 다변화 ②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③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을 중점 추진한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 학문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를 활발히 하고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각 분야,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지원 강화
인문사회 전공자 사회진출 경로 다변화
생활 속 인문사회 확대, ‘삶’ 풍요롭게

여러 지역에서 강의 연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강화

먼저, 교육부는 연구 혁신과 창의적 연구결과 창출을 이끌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전임연구자 대상의 지원(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개편한다.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도록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2018년 기준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는 3만여 명으로 취업·이직이 잦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한국연구재단을 추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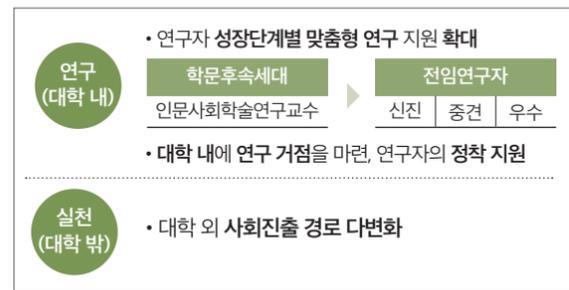
특히 교육부는 전임연구자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하며, 신규선정 과제의 10% 내외를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으로 선정한다. 중견연구자는 장기간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심층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 연구지원 트랙을 확대한다. 현행 7년 과정의 20과제를 지

[표1]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개편

구분	현행
지원 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관리주체	대학(산단)
지원 규모/기간	3개 사업 총합 1,780명(19), (박사후) 과제당 3,400만 원, 1~2년 (학술연구교수) 과제당 4,000만 원, 3년 (시간강사연구) 과제당 1,400만 원, 1년
역할	연구과제 수행
성과관리	논문 중심 결과평가

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년 과정의 10과제를 지원한다. 또 연구경력과 무관하게 학문 분야별로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학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인문사회 석학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표2] 학문후속세대 지원 정책 방향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학 인문사회연구소도 확대한다. 우수 연구소는 최장 20년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학문후속세대들이 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소는 최소 2명 이상의 전임연구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학문후속세대 육성과 더불어 연구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년 개편 방향(안)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또는 대학(산단) - 연구자가 선택	
1유형(장기)	최대 5년(2+3) 지원
2유형(단기)	1년 지원
연구과제 + 지역 내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역할 수행	
대학 내·외부 교육 등 활동도 평가, 평가시 저서·역서 비중 확대(장기 유형)	

특히 이번 방안은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대학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가칭)인문사회연구지원센터를 통해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연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인문학 협동조합(2014년 설립)'의 경우, 인문학 박사 60여 명을 비롯해 교사, 대학원생, 시민 등 120명이 참여하여 인문학 관련 교육사업, 지역연구사업, 출판사업 등을 해오고 있으며, 여성 IT전문가로 구성된 '굿잡마미 협동조합(2016년 설립)'은 IT 분야 제작·서비스 사업을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IT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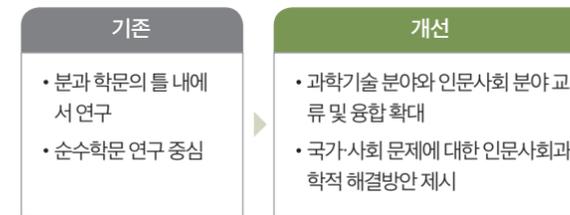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또한 교육부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윤리적, 법적, 사회적인 함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인간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즉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가 활성화 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 실현되도록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인문사회 연구자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향후 5억 이상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인문사회연구(ELSI: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를 권장하고 '20년부터는 연 100억 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ELSI 분석과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도 확대된다. 고려대 연구팀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한국어교육 포털을 제작한 바 있으며, 서울대 연구팀에서 모바일 가상학교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및 훈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인문사회를 보완하는 혁신기술 개발형 연구와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보완하는 사회혁신 창출형 연구 등을 확대 지원한다.

[표3]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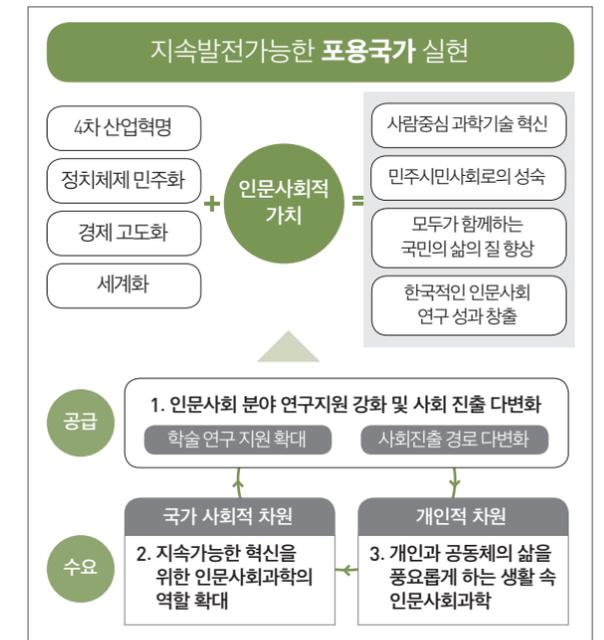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순수학문 중심으로 추진했던 연구 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문제해결,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형 지역 연구 등 국가·사회 이슈에 대한 대안을 인문사회 연구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초지자체와 대학연구소가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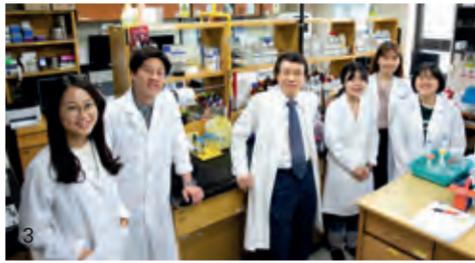
립하는 '인문도시'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삶의 질 높이는 인문사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방안 실행을 통해서 인문사회 학술의 성과들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통찰이 뒷받침 되어,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히며,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림3]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대학중점연구소, 올해 신규 22개 등 지원 확대
대학 연구소 특성화·자립화로 우수 연구인력 육성
대학 연구시설 공동 활용 올해부터 본격 추진

대학중점연구소
한림대
생명공학연구소

치료용 단백질 연구로 차세대 과학기술 선도

1994년 개소한 한림대 생명공학연구소는 단백질 치료제 연구에서 세계적인 선두그룹으로 꼽힌다. 단백질 치료에서 핵심이 되는 단백질 침투기술을 국내 최초로 연구,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도 초기에 머물러 있던 기초·응용연구 대열에 일찌감치 합류했다.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최수영 한림대 생명공학연구소장은 “단백질 치료제는 효과는 탁월하나 부작용이 적은 매우 효율적인 치료제이지만, 단백질은 고분자물질이기 때문에 세포나 조직내로 침투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단백질 세포 침투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인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단백질 치료법을 실용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응용력이 뛰어나 향후 모든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기반기술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단백질 치료란 질병이 발생하여 세포가 비정상적이 되면 치료용 단백질을 처리해 세포를 회복시켜주거나 또는, 세포사(apoptosis)를 유도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공학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연구 분야로, 최근에는 인체 질환이 세포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적인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림대 생명공학연구소는 2009년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며, 단백질 치료제 연구가 더욱 날개를 달았다. 9년간 매년 5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화된 선진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눈에 띄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았다.

특히,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178편. 학술 발표는 238건에 이르며 국제 특허를 포함해 특허 출원과 등록은 각각 80건(미국 2건), 21건(미국 2건)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논문의 경우 우수 논문 기준으로 활용되는 JCR(논문 인용 지수) 상위 10% 이내에 드는 1등급이 12편, 2등급 19편, 3등급은 57편에 달한다. 국내 20여 개 대학과 연구소, 외국 7여 개 대학과 산업체에 침투성 단백질을 보내 그 효과를 검증받는 등 국내외 공동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학중점연구소·핵심연구지원센터

대학 이공기초학문 연구 기지로 키운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이공학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662억 원을 투입한다. 신규로 지정된 22개를 포함, 총 92개 대학중점연구소와 20개 핵심연구지원센터가 그 대상이다. 두 사업은 교육부가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거점 육성을 위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과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여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15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을 받는 한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들
- 2 단백질 치료제 연구에 매진하는 최수영 소장(우)과 연구원
- 3 실험실에 모인 최 소장(우)과 연구원들
- 4 기술이전으로 개발된 기능성 화장품

이공계 인재 양성
요람으로

특허 출원 80건 등 기술이전·상용화 활발

기술이전과 상용화에도 가시적 진전을 이뤘다. 강원 춘천은 바이오산업 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지역 기업과 연계한 기술이전으로 2억 2천여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단백질 침투기술을 이용한 주름 개선 화장품 단백질제제와 바르는 보톡스 등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최 소장은 “탁월한 연구 성과도 대부분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국내외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20여 개가 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 연구 발표를 하는 등 기술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지역 기업체에 기술지도와 기술이전을 통한 신제품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이공 분야 우수 인력 발굴과 육성은 가장 기쁜 일로 꼽는다. 연구소 내 치료용생체고분자 대학원 협동과정을 만들어 석·박사 4명을 배출했으며, 3명은 전임교수로 6명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미약품 등에 전임연구원으로 진출했다. 이곳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며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수십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김대원 강릉원주대 치의학과 부교수는 “연구소가 단백질 침투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그룹에 속해 있다. 연구원으로 지원해 기술을 배운 뒤 본국에서 교수가 된 해외 학생들도 많다.”라며 “기초학문을 연구한 이공계 우수 인력의 취업 문이 좁다. 중점연구소가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해 도움이 컸다.”라고 웃는다.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는 중점연구소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8개 연구소를 후속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6년간 각각 42억 원을 지원한다. 후속 사업에 선정된 한림대 생명공학 연구소는 최초 지원 사업에서 발굴된 뇌질환 중 파킨슨병과 뇌허혈 질환 치료용 후보 단백질을 개발해 지역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소장은 “국내 파킨슨병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뇌질환증 치료에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안구건조증 단백질 치료제도 관련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 부작용 없고 효능 좋은 새로운 단백질 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6 한림대 생명공학연구원 연구 현장
7 전남대 핵심연구지원센터 개소식



핵심연구지원센터
대학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올해 175억 원 20개소 본격 지원

1980년부터 시작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올해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70개에서 신규로 22개 연구소를 선정해, 총 92개에 487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연구소 운영 방식과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최대 6~9년간 연 7~11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과학 분야 4개 연구소는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자체 연구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장비를 연구 분야 단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연구장비 교체와 전담인력을 충원해 핵심연구지원센터(Core facility)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초기 연구투자비를 줄이는 등 연구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경희대 광전자소재·소자분석전문센터 등 20개소를 선정, 총 175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최대 6년간 장비집적회비, 시설운영비, 장비전담인력 인건비와 장비 활용 연구비 등으로 연간 3~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남대 에너지 융·복합 핵심연구지원센터는 지난해 시범 조성을 통해 3개월 간 150건 이상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정장비 14점, 분석장비 13점 등 총 27점을 집적하고, 신재생 에너지 연구의 공정에서부터 분석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호응이 높다. 하준석 센터장은 “광주는 광융합 기반 기술·인력이 축적된 지역으로 수준 높은 연구자들이 모여 있지만, 장비 등이 노후화돼 활용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장비사용료를 특화분야 핵심장비 도입 등에 재투자해 유관 분야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도형 원천기술 창의 연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범 조성한 경북대 영남권 질량분석 지원센터는 10건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한편, 성균관대 MEMS·센서 플랫폼은 우수한 장비전담인력을 활용해 장비 수리비를 1/3로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숙련된 장비전담인력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비 집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장비전담인력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 이공 분야 연구 기반 구축 사업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기간	2019년 예산 및 과제수	
				예산	과제수
대학 연구 기반 구축	대학(연구소)을 단위로 하는 연구공동체 형성 및 대학 및 지역의 특성화·자립화된 연구 거점으로 육성, 우수 연구인력 발굴·육성	7~11억 원	6~9년	487억 원	신규 22 계속 70
	대학 내 단독 활용 중인 연구장비를 학과(단과대) 또는 연구 분야 단위로 집적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전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역량 강화하여 R&D 성과 제고	3~6억 원	6년	175억 원	신규 20

왜! 스스로 연구자 정체성 훼손하나, 대학 생태계의 오염 원인은 ‘학생의 소외’

잇을 만하면 대학에서 교수들이 저지르는 온갖 갑질과 부정행위의 소식이 들린다. 어떻게 교수가 학생을 괴롭히고 스스로 연구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를 탄식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문제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개인들의 일탈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부정행위들이 그 많은 방지대책을 뚫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한국 대학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 핵심에 학생의 소외가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주시하면서 대학생태계 안팎 여러 주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정부

과거 대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독재정권 치하에서도 사회의 여러 다른 영역에 비해 대학의 자율성은 더 많이 허용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교수와 학생의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여졌다. 오늘의 기준으로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지만, 대학생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존재들이란 자부심도 있었고 사제지간의 전통적인 애정과 범절도 남아 있었다.

이후 대학의 증가, 민주화,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만나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교수들의 연구 성과, 취업률, 산학협력 등이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사항으로 제시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키워드가 제시된다. 대학은 자율성을 상실한

채 정부의 방침 앞에 교육의 방향을 마구 바꾼다.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실업 문제 해결의 책임이 갑자기 대학의 것이 되고, 출석부와 성적 부여 같은 학교의 기본 업무까지 정부의 간섭이 미친다.

이런 압력은 대학당국을 거쳐 교수들에게 도달하고, 그 부담은 학생에게 전가된다. 학생들은 학교가 정부에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뜬금없는 사업에 실험대상으로 동원되기도 하고, 교수에게 부과되는 연구 부담 때문에 부당행위나 논문 강탈을 당하기도 한다. 연구실이 사업체나 공장처럼 되고 대학원생은 저임금 노동자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학생을 보호하는 정책도 만든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대중적이어서 언제나 우회로가 생긴다. 애당초 정부의 대학 관리가 학생의 상황과 입장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을 보호하려는 규제와 장치들마저도 진정 학생을 위한다기보다는 잡음을 없애는데 치중한다.

기업과 사회

오늘도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 말하는 사람은 참 낭만적인 사람이다. 대학은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일 뿐이다. 기업들은 ‘쓸 만한 인재’를 구하고, 사회는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대학생들 자신도 취업을 대학 교육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시대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평가와 목표설정은 당연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기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의 역할과 위

상이 ‘먹고 사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암울하다. 먹고 살기가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자체만 강조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도구화하는 현실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기업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반기업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든 ‘하면 된다’는 말만 되뇌인다. 해방 이후 기독교 세력을 지탱해 온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목소리로 표출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구조에 대한 비판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젊은이들에 대한 못마땅함이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주의의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당국

이 틈바구니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가지는 위상은 참으로 처참하다. 대학은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대학이 당장 생존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정부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대학원에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서 사실상 통계를 조작하는 편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학의 성격과 수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요구되는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 막대한 협력 사업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정작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은 이사회나 CEO 총장, 일부 보직교수들의 관리 대상일 뿐이다. 대학당국이나 대학 주인들의 눈에 교수와 직원은 연봉은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문제거리이고, 이 중에서도 교수는 게으르기까지 하다. 따라서 논문 편수, 강의 평가를 비롯한 각종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은 누구인가? 그들은 대학을 스쳐가는 캐쉬카우(Cash Cow)일 뿐이다. 지내는 동안 적당히 비위를 맞추어 주고, 불평하더라도 무시하면 곧 졸업할 것이다.

대학교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조교를 시키면 된다”는 농담이 있다. 교수는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졌는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 존경과 복종을 요구한다. 그 존경은 교수가 가진 권력과 학생들의 막연한 기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학원에서 대부분의 갑질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학원생들과 교수 자신은 교수가 학생의 앞길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다고 믿거나 믿기로 하고, 절대복종의 관계를 유지한다. 모든 교수가 그런 대우를 받거나 갑질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도제식의 교육을 이데아로 설정하고 선생과 제자

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일방적인 관계로 착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학생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은 더 이상 배움의 터가 아니다. 등록금과 높은 지대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학부 시절에는 아르바이트에,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면 연구실의 여러 잡무에 시달린다. 배움의 즐거움, 학문을 위한 학문 같은 개념은 없어진지 오래다. 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 학점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활동들도 결국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일 뿐이다.

대학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은 냉소적이고 자조적이다. 경쟁에서 나오하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살 궁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원칙 앞에서, 정의로움에 대한 갈망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사치일 뿐이다. 세상에 대한 냉소보다 슬픈 것은 자신에 대한 냉소다. 학생들이 교수 자식의 숙제를 대신하고 개밥을 주고 인격적인 모멸을 감내하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그들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 왜 사회에서는 갑질과 차별, 비리와 혐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데 대학 안에서는 여전히 퇴행적인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학생을 우선하는 대학생태계

우리 대학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학생이

대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요구를 듣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을 고용할 때나 대학을 경영하고 학생을 가르칠 때나 학생이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을 말할 때 교수가 아닌 대학생이 머리에 떠올라야 한다.

대학의 머리 위에 돈을 흔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대학에 강요하는 정부 관료의 머릿속에는 학생이 없다. 건물을 짓는 데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 교수임용은 커녕 시간강사는 한 명이라도 줄이려 애쓰는 총장의 마음속에는 학생이 없다. 연구윤리 부정을 저지르고 남의 자식은 학대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시험지나 훔쳐 주는 교수는 학생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교수도 아니다. 그 교수를 잡아 파면하고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도 대학 생태계의 존재 이유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모든 관련 주체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학 생태계의 재건은 불가능하다.

연구윤리를 비롯한 대학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존중, 학생의 진정한 유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다. 혹자는 너무 막연한 대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염된 생태계는 썩은 나무 몇 그루를 자르고 효과가 좋다는 수입산 농약 몇 통을 뿌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학생을 가르치고 기르는 곳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②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 정직한 연구 위한 대학 책무성 높인다

정직하고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대안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수립,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으며, 이중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부실학회로 지적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90개 대학의 574명이 참석했다. 이에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되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 1,434종의 30%가량이 부실 운영을 이유로 등재 취소와 경고, 주의 등 행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을 올리거나 표절과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사전예방: 연구윤리 개념·유형 정비, 교육 강화

먼저, 교육부는 범부처 및 학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연구자·기관의 이해 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연구자 생애주기 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고, 대학교수 및 총장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연구윤리 감수성을 제고한다. 또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을 고려,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의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학술정보공유 시스템(19년 상반기 시범개설)을 구축,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 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한다.

사후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또한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횡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10년,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개정)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 더불어 대학별 징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성 여부, 비위 정도 및 과실의 중대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시를 공유한다.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 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학술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하고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기반 구축: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관리역량 강화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20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직접비 분리 지급(오버헤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를 검토한다.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협업하여 대학 기관평가인 중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 첫 공립 대안학교 '송정중학교'

어른들의 따뜻한 돌봄과 관심 잠자는 아이들의 마음을 깨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월 5일, 부산의 첫 공립 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를 설립,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6학년 60명 정원의 기숙형 대안학교인 송정중(교장 정현섭)은 현재 개교와 동시에 입학한 1학년생 19명이 생활하고 있다. 2~3학년생은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최종 선발 중에 있다.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학생들의 돌봄과 치유 그리고 배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송정중학교의 비전을 들었다.

송정중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첫 공립 대안학교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2017년, 말투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후배를 가혹하게 폭행한 일명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단위 학교 차원의 예방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교육 차원에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업중단 위기

에 처한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때부터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올해 그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교사(校舍)는 2017년 폐교한 교실 18칸 규모의 송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했으며, 기숙사동은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다. 곧 완공될 기숙사동 1층에는 식당과 PC방, 체력단련

실, 당구장이, 2층에는 학생 기숙사와 사감실이, 3~4층에는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안학교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간도 눈에 띈다. '꿈이룸터'는 일반학교의 도서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소규모 발표를 할 수 있는 무대 공간을 비롯해 열람석, 자유공간, 온돌방, 컴퓨터 검색대, 수업 공간 등을 갖춘 복합적인 학습 공간이다. '맛공간'은 네일아트 및 피부 미용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일반 미용실 공간을 떠올린다. '맛공간'은 다양한 요리, 제빵 실습 및 바리스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아픔이나 고민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Wee 클래스'와 '보건실'은 여느 가정집 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드럼·사물놀이 등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갖춘 '음악실'도 있다. 교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기에 대안으로 복도에 전화기와 컴퓨터를 설치해두고 있으며, 컴퓨터는 중앙 서버로 관리한다. 학교 나무숲 사이로 산책길이 있고 원에 실습을 위한 텃밭, 동물사육장, 야외수업을 위한 정자도 조성 중에 있다.

'관심'을 먹고 크는 아이들

송정중학교에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아늑한 교실을 만나 볼 수 있다. 교실 한 칸의 넓이 34m². 일반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딱 그만큼의 공간에 2열 횡대로 배치된 책상 앞에 선

- 1 도서관 겸 '꿈이룸터'
- 2 요리 및 제빵실습이 가능한 '맛공간'
- 3 네일아트 및 미용수업을 위한 '멋공간'
- 4 맞춤형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
- 5 송정중학교 전경



생님과 아이들이 마주한다. 심장소리까지 들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선생님은 그날의 아이들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고 일반교실보다 조금 더딘 속도로 수업을 이끈다.

한정동(기술·가정) 교무부장은 "우리 아이들은 자기표현이 강하고 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한 편"이라며 "숨소리,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릴 만큼 아이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뭔가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발견하면 슬쩍 다가가 한 마디 거둬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6 체력단련실
7 방음 시설을 갖춘 음악실
8 송정중 첫 입학생들

이러한 물리적 거리 외에도 모든 교사와 전교생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고민 상담은 물론, 문제 해결을 돕고 있어 교사와 학생 간의 심리적인 거리도 무척 가까운 편이다. 한정동 교무부장은 “오랫동안 교무부장, 생활지도 부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규율을 정해 별점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고 말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데리고 주말이면 여행을 비롯해 등산, 전시회 등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관심을 쏟았더니 자연스럽게 문제행동이 치유됐고 학교폭력 제로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그때 깨달은 것이 ‘관심’이었다. 생활지도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관심을 갖고 이끌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대안학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지도 노하우를 이곳에서 모두 쏟아보고 싶다.”라고 말한다. 정현섭 교장, 이기원 교감을 비롯해 18명의 교원이 같은 이유로 송정중학교를 지원했고 이곳에서 그동안 꿈꿨던 대안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마음을 깨우는 소리, 교실을 깨우는 소리

송정중은 일반 중학교와는 달리 국·영·수 수업은 적고 다양한 진로 체험과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고려한 선택(필수)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예술체험을 비롯해 개별·융합 프로젝트, 산악등반, 미래주제연구, 소통공감 등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선택필수교과를 전 학년에 걸쳐 운영한다. 또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성공적인 직업생활(목공, 코딩, 미용, 요리, 원예, 실용음악

등)과 생활체육(검도, 댄스, 축구 등) 등의 선택교과를 무학년제로 운영 중이다.

정현섭 교장은 “학급당 인원수가 10명 수준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전달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게 발문과 응답, 상호토론, 모둠학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가 일반학교보다 높다.”라고 설명한다.

현재 개교와 함께 입학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1학년은 총 19명. 이중 50%는 학교 부적응 문제로, 50%는 대안학교의 다양성 교육에 매력을 느껴 진학한 경우다. 이기원 교감은 “2~3학년의 경우 학교 부적응에 따른 어려움을 겪다 우리 학교로 전학 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다.”라며 “많은 학부모들이 내 아이는 문제없다,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조금씩 아픔을 안고 있다.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최종 선발 중에 있다. 이 아이들이 골고루 섞여서 공동체 속에서 배려를 익히고 꿈을 키워나갔으면 한다.”라고 설명한다.



8

“예전에 학교 적응도 어려웠고 교실에서 잠만 자다보니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자연스럽게 결석도 잦아졌고요. 제가 보컬, 밴드에 관심이 많은데, 송정중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배울 수 있으니까 목이 아파도 결석은 하지 않아요.” 한 학생이 살며시 다가와 한때는 자기가 학교 부

적응 학생이었다고 고백한다. 이 학생은 올해 중1이 두 번째인 복학생이다. 선생님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어서일까? 고작 3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이 학생은 “학교에서 결석과 잠은 안 잔다.”고 귀땀한다. 그래서 가끔 몸이 피곤하단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아이라서 살며시 미소가 지어질 뿐이다. ㉠

INTERVIEW

정현섭 교장 인터뷰
“아이들이 세상을 향한 꿈 키우도록 도울 터”



송정중학교는 부산의 첫 공립 대안학교인데, 어떤 배경에서 설립하게 되었나?

2년 전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학교 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부적응·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방안이 논의됐다.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됐으나 이번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다 2016년부터 금정구 부산학생교육원 내에 한빛학교를 위탁형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에 위탁형이 아닌 공립형 대안학교를 서부산권에 설립하게 된 것이다.

초대 교장으로서는 중점을 둔 교육활동이 있다면.

송정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생활지도 담당을 오랫동안 했으며, 위탁형 대안학교인 한빛학교의 교감을 지냈다. 이기원 교감선생님 또한 오랫동안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으며, 대안학교 설립 실무를 맡아왔다. 우리 학교는 교장, 교감 외에도 정규교원 18명 중 9명이 1지망으로 오신 분들이다. 나머지는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대안교육에 열정이 있는 기간제교사 중에서 선발했다. 대안교육에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함께 멘토-멘티가 되어 몸과 마음을 키우고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우도록 돕고 싶다.

멘토-멘티를 통한 교사-학생 간의 소통과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나?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학급당 10명 수준이다. 멘토-멘티는 담임교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모든 교원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1대 4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못했던 어려운 이야기를 멘토교사를 통해 상담하기도 하고 심리적 지지를 얻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과 멘토교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학생들을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아직 기숙사동이 완공되지 않아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다. 사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다. 혹여 하교하는 과정에서 원적교 학생들의 만날 수도 있고 주말 동안에도 일탈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교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학교 폭력이나 교권침해 사례가 없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순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곧 기숙사동이 완공되면 우리 교원들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우리 학교가 문제아의 집합소가 아닌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 생각이 자유로운 학생들이 적성을 살려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 교원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심학경 경기 당촌초등학교 교장

“혁신을 거듭하며 더 나은 교육을 꿈꿉니다”

자기 일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언제나 더 나은 무언가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이들.

심학경(60) 경기 성남 당촌초등학교 교장이 걸어온 길은 늘 혁신을 꿈꾸는 교육자의 열정이 깊게 배어 있다.



“교육도 이제는 바깥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일이 중요하지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골몰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일은 결국 교육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오는 6월 학부모 공개 수업의 날, 당촌초는 새로운 수업 참관록을 준비 중이다. 기존에 형식적으로 써내던 참관록을 아이 성장과 배움에 주목하도록 바꾸고 있는 것. 자녀의 배움 활동을 쓰는 란을 마련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지, 친구와 협력해서 수업에 참여하는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좋은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했다. 집에서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거리도 제시해 공개 수업이 끝난 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수업참관록이란 이름도 교사 중심의 용어라 학부모들에게는 어렵잖아요? ‘수업 보고 함께 얘기해요’,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나누는 배움 이야기’ 등으로 이름을 바꿔 학부모에게 긍정적이고 쉽게 다가가려 합니다. 과거 공개 수업이 우리 아이 평가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아이의 배움과 성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발전적인 시간으로 만들어내고자 해요.”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혁신 꽃 피우다

당촌초에 부임한 지 올해 3년 차가 된 심학경 교장은 “혁신이 꽃을 피우고 있다.”라며 웃는다. 첫해에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당면한 문제에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일부터 시작했다. 모든 교직원들이 각자 협의체를 만들어 주제에 따른 ‘모이자’ 회의를 열고, 이듬해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 수업 설계를 통해 “수업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기반으로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기획 단계부터 학생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과학축제와 체육대회는 물론,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학년별 인재상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운동회 날 미세먼지 경보가 예고됐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 3주체가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지요. 운동회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학생 측과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는 학부모 측의 입장이 엇갈렸는데, 그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어요. 두 시간마다 운동장에 물을 뿌리고, 학교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우기로 하면서 서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지요.”

학생, 학부모가 의사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교사들 사이에 배움의 공동체가 자리 잡으면서 학교에는 혁신이 ‘썩’ 났다. 심 교장은 “혁신학교는 교육공동체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혁신학교로 나아갈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전임지인 태평초에서도 그의 혁신 경영은 빛을 발했다. 오후 3시 졸업식은 당시 맞벌이 부부가 다수인 학교에서 큰

- 1 상담실 팻말이 걸린 교장실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목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다. 학부모가 자주 찾는다며 웃는 심학경 교장
- 2 심 교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아이들이 만든 선물
- 3 심 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독서 프로그램 씨앗동화 수업.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한 6학년 6반 아이들과 지난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호응을 끌어냈다. 교내 1층에는 '새콤달콤 어머니 교실'을 만들어 누구나 오가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가천대, 경희대와 MOU를 맺고 저소득층 공부방을 공동 운영하는 등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일반화를 주도하며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 지난 5월 제38회 스승의 날에 수상한 정부포장은 지역기관과 연계해 교육 희망사다리를 복원한 공로로 주어진 값진 상이다.

“태평초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다양한 체험 등 배움을 적기에 보살피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주지 못한 일을 학교가 해 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

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갔지요. 학교의 노력을 학부모가 알아주고, 학교와 교육주체 간 신뢰가 쌓이면서 학교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연계 기초학력 진단... 경기혁신교육 선도

심 교장은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공교육에 다양한 변화의 바람도 불어 넣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와 상담을 지원하는 '순회상담 지원단'은 2005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시절 전국 최초로 운영하며 화제를 모았다. 상담 자료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도 담당교사가 학습지도 시 활용할 수 있게 누적되도록 했다. 심 교장은 “1년 동안 기초학력 지도를 통해 부진학생이 줄었다가도, 다음 해에는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라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아이의 마음에서부터 살펴보고, 동기 유발이 안 되는 이유를 심리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말한다.

36개 혁신연구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교과 연구뿐 아니라 학교경영, 담임제도, 학교행사 등 다양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연구회를 조직해 지원했



일상의 모든 순간을 교육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 4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전시된 학교 현관에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심 교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 5 당초초는 올해 민주적 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서관 수업에서 만난 6학년 아이들과 환하게 웃는 심 교장
- 6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심 교장

다. 태평초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이때 당시 혁신적으로 연구해 온 결과물 덕분이기도 하다고 심 교장은 귀띔한다.

수업과 교실 혁신은 그의 주요 관심사였다. 경기도교육청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 '에듀모두'를 통해 3천여 종의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지역체험자원지도(CRM), 온라인콘텐츠 등을 탑재해 실질적인 수업 혁신을 이끌었다. 또한 'Edu-One 수원교육컨설팅지원센터'를 통해 자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컨설턴트 496명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사들 간 배움의 열정에도 불을 지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 시에는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청사 3층에 카페 '도란도란'을 마련해 소통의 장을 열고, 각급 실무진 협의체를 구성해 문화예술교육, 통학로 등 현안을 적극 해결하며 지역의 성장을 지원했다.

교사는 '창업가 마인드'로 수업 설계해야

예비교사 시절부터 그의 수업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3학년 교생실습 때는 지도교사의 추천으로 학년 대표수업을 하는 한편, 교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은사님의 자녀들도 가르치는 기회도 생겼다. 초등교사 3년 차에는 수업기술우



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업실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업명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어느 날 수업을 참관한 장학사로부터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문직에 들어서게 됐죠. 수업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게 됐네요. 하하”

그가 말하는 수업 노하우는 단순하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교육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갖춘 교육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이미 지나간 지식이 아니라 교실 밖의 살아 있는 지식을 교실 안으로 들여와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교사도 창업가 마인드로 자기만의 수업을 새롭게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틀을 깨는 건 제3자의 시각입니다. 교육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면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스님의 인생철학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가 연수를 찾아 듣는 이유지요.”

당초초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심 교장은 앞으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현장에 전해줄 수 있는 '교육발전소(가칭)'를 통해 교육봉사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한다. ②

김지숙 교사의 평화·통일교육 특명! ‘통일’이 낯설지 않게 하라



DMZ 기행 현장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동변중 학생들

매년 5월 넷째 주는 교육부와 통일부가 지정한 통일교육주간이다. 통일교육주간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올바른 평화·통일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 동변중학교(교장 김영우)의 김지숙 부장교사(역사) 역시 생활 속에 스며드는 평화·통일교육을 펼치고 있다. 미래 핵심역량으로 꼽히는 4C를 활용한 김 교사의 ‘바알실(바로 알고 실천하기)’ 통일 역량 성장 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한다.

제7회 통일교육주간이었던 지난 5월 넷째 주, 동변중학교 역사교과실에서는 ‘2019 평화·통일문예전’이 펼쳐졌다.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한 시간 동안 굿즈 디자인,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중 하나를 선택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했다. 무궁화와 목란이 어우러져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핸드폰 케이스, 남북 정상을 오뎅이로 형상화해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통일이 되길 원한다는 의미의 그림 등 저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선보여졌다. 우수작품은 교내에 전시될 뿐만 아니라 실제 굿즈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상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통일도 이처럼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생활과 밀접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김지숙 교사는 교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전부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평화·통일문예전을 비롯해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DMZ 기행, ‘우리가 몰랐던 북한’ 전시회 등 굵직한 행사 외에도 생활 속의 소소한 통일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즐겨 먹는 두부밥·속도전떡 맛보기, 평화·통일 기원 머그컵과 배지 만들기 등이다. 통일교육주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매 교과시간에도 통일교육을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수업 철학이다.

통일교육을 향한 김 교사의 열정은 교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의 담당 교과교실을 보면 평화와 통일 관련 도서를 비치해둔 것이 남다르고, 교실 뒤편의 게시판에는 학생들이 통일을 주제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해 눈에 띈다. 복도에는 통일 관련 행사 소식을 알리는 홈페이지 게시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통일을 시각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니, 적어도 이 학교 안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교내 곳곳에서 흔히 보이는 단어 ‘통일’

김지숙 교사는 지난해 교육부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에서 중등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교사가 평화·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을 기를 수 있는 4가지 역량이었다. 비판적 사고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 이를 평화·통일교육에 대입해보면 북한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우리가 몰랐던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통일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관심이었습니다. 학생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이 관



평화·통일문예전에 참여한 학생들



역사교과실에 비치된 평화·통일 관련 문고

심을 가지는 문제일수록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는 법인데, 통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너무 먼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죠. 관심이 없으니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렵고요.”

먼저 통일에 관한 관심부터 불러일으키기 위해 김 교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바로 '1분 통일교육'. 1주일에 3번 있는 역사 교과 시간 도입부에 남북관계 이슈나 북한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북한의 PC방과 지하철, 관광지 알아보기 등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부터 3·8선과 휴전선의 차이, NLL,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교사는 “매일 조금씩 스며들 듯 남북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자연스럽게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1분 통일교육’으로 통일 인식 확장

그는 올해로 2년째 교내 통일동아리의 지도 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복도에 전시된 평화·통일 기원 철조망 역시 동아리 학생들과 그가 손수 만들어낸 작품이다. 각가지 색의 리본에 ‘원래 하나였습니다’, ‘마주 잡은 평화의 손, 함께 여는 통일’ 등 애뜻한 메시지까지 담겨있으니 DMZ 철조망의 일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듯하다.

“통일동아리에 들어온 학생들은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어서 억지로 끌려오거나 별생각 없이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으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것이 평화·통일교육의 현실이고요. 이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방법부터 생각했습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 특히 흥미 위주의 활동들을 기획했다. 매월 1회, 점심시간 20분 동안 펼쳐지는 ‘월별 통일 한마당’이 그것이다. 평화·통일 기원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통일 어록 퍼즐 맞추기, 머그컵과 거울, 배지 만들기 등 작은 것 하나에도 ‘통일’을 접목시켰다. 평화·통일교육은 고리타분한 것이라든가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수의 아이들부터라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장 호응이 좋았던 DMZ 기행 역시 분단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교사는 “현장 체험학습을 가셔도 일방적인 강의식 설명은 최소화하고 모듈별 사진 콘테스트처럼 단체로 협동하는 활동을 펼쳤다.”라며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북연합 상상하기 수업



복도에 전시된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

“참여형 활동으로 자발성 이끌어야”

김지숙 교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강조한다.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강압 대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에 대해 인식하도록 생각의 단초를 열어주고,

보이텔스바흐 합의
1976년 서독의 보수 및 진보 정치교육학자들이 모여 합의한 교육지침 ①강제성 금지 ②논쟁성 유지 ③이해관계 인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해보도록 했다. 통일한국 대신 남북연합 단계의 한반도부터 먼저 생각해보도록 한 활동도 그 일환이었다. 학생들은 남북 교환학생 제도를 통한 서로의 문화 배우기, 북한에 현장학습 가기, 화폐 통일, 유럽까지 기차 타고 여행 가기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상상했다.

이념논쟁 등의 이유로 통일은 웬지 함부로 꺼내기에는 조심스러운 주제로 여겨지곤 한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김 교사는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듯이, 통일도 지금 우리의 삶과 바로 연관된 문제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평화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럽연합 같은 남북연합이 가능할까?’ 등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

1 동변중 학생들의 평화·통일문예전 작품
2 김지숙 교사와 통일동아리 학생들이 꾸민 평화·통일 기원 철조망



김지숙 교사의 ‘바알살’ 통일교육 TIP

1. 통일에 익숙한 환경 조성하기

- 교과교실에 통일 관련 주제, 혹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서를 비치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 통일 관련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을 설치한다.
-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공간에 통일 관련 자료를 전시해놓는다.

2. ‘1분 통일교육’으로 통일 인식 높이기

- 매 수업 시작 시간에 남북관계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한 퀴즈로 풀어본다.
-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한 주제로 확장한다.

3. 흥미 위주의 체험 활동

- 월별 통일 한마당: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머그컵·거울·배지 만들기 등 점심시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한다.
- DMZ 기행을 통해 직접 분단현장을 보고 느끼게 하고, 현장에서도 딱딱한 설명 대신 모듈별 활동으로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4. 강제성 NO! 자유로운 논의 이끌기

-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대신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 남북연합 단계의 한반도를 상상해보며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청바지 프로젝트'



'청바지 프로젝트'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흔히 입는 청바지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학생들 역시 "청바지로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지?"라고 반문하곤 한다. 청바지 프로젝트란 '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성남시 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터를 개방하고, 청소년은 지역 일터에 찾아가 간단한 업무를 체험하며 삶의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직업과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현재 성남시 내 400여 개 일터가 참여 중이며, 지난해에는 총 4차에 걸쳐 성남시 내 17개 중학교 1학년 2,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학교 차원에서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경쟁률도 치열하다.

청바지 프로젝트는 3일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은 '상상마당'으로, 교내 수업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본인이 꿈꾸는 일터와 직업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며 교사와 함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모둠을 지어 각자의 직업관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눈다. 좋은 직장의 조건에 대해 학생들은 급여, 복지제도, 고용 안정성 등 저마다 다양한 기준을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다음날 있을 일터체험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첫날 활동은 마무리된다.

둘째 날 '느낌마당'은 교사의 인솔하에 학생들이 현장에 있는 일터를 직접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직업과 노동의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일터에서 멘토를 만나 해당 직업인으로서의 고충과 포부, 보람 등 직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한다. 다양한 현장 업무를 체험함으로써 해당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단순히 현장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 세부 관찰 일지를 쓰고 일터에서의 활동 기록, 멘토 인터뷰 작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성남시 내 400여 개 일터체험 중심 3일간 과정

현장 체험활동 중 인상 깊었던 곳이 많았는데, 그중 한 곳이 경기 성남에 위치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편찮으시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과 탁구 게임을 즐기는 등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어서 학생들은 물론, 인솔교사에게도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한편,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할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배워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하탑중학교 학생들이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직원 전용공간을 비롯한 건물 곳곳을 다니며 유통과 서비스 관련 업무를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했다. 특히 식품매장 창고를 둘러보며 시식도 해보는 등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더욱 높았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 '나눔마당'은 다시 교실로 돌아와 각자 체험한 일터와 직업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다. 모둠별로 나누어 일터체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통해 생각을 정리한다. 일터체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년 동안 청바지 프로젝트의 인솔교사로 활동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직업에 관한 정보는 너무나 많지만,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직업의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각 직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업적성검사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꿈과 직업을 찾아주고 바른 직업관과 인생관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바지 프로젝트는 사흘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기존의 단순한 직업 탐방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진로직업체험이 가능하다. 직업 체험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사전과 사후 활동으로 나누어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앞으로 더욱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청바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바라며, 학생들 역시 적극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에 임해 본인의 진로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12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업무를 체험한 하탑중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일터체험 보고서
3 일터체험 현장 모습

문의
성남시청소년재단
031-729-9000



이승우 119레오 대표

폐방화복 재활용해 패션잡화로 “소방관 처우개선 위해 수익금 기부”



지난 2014년, 31세였던 고 김범석 소방관은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암을 선고받은 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그는 현장 출동 1,000회를 넘길 정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수많은 구조 활동을 펼쳤지만, 업무 환경과 질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을 받지 못했다. 119레오(대표 이승우)는 이처럼 힘든 환경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소방관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탄생했다.

건국대학교 창업동아리 ‘인액터스’에서 시작된 119레오(REO)는 ‘Rescue Each Other’, 즉 서로를 구한다는 뜻이다. 이승우 대표는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해주는 소방관처럼, 어려움에 처한 소방관들에게 우리도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119레오는 폐소방복을 활용해 가방, 팔찌, 키링 등 패션잡화로 만들고, 그 판매 수익금 일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를 통해 공상 불승인 소방관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3년 전 이승우 대표를 비롯해 총 3명의 팀원들은 소방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영웅’이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됐다. 장비가 부족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암 투병 소방관들은 대부분 공상 불승인으로 개인 휴가를 내서 사비로 치료받는다. 특히 고 김범석 소방관의 이야기는 소방관 처우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팀원들은 연간 버려지는 소방복 1만 벌을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 1 이승우 119레오 대표
- 2 119레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전부 폐소방복을 재활용해 만들었다.
- 3 이승우 대표는 119레오의 제품을 직접 디자인한다.



창업동아리서 시작, 故김범석 소방관 사연 계기

폐소방복을 제품화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다. 디자인을 전공한 팀원이 없어서 7~8개월간은 상품 디자인에만 매진했다. 제작 과정에서도 방화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가 특수 소재인 만큼 재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무작정 동대문을 찾아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40여 군데 공장을 일일이 컨택했다. 소방복을 하루에 10벌씩 직접 손으로 분해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었지만 선한 의도를 가진 119레오 팀에게 많은 이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첫 크라우드 펀딩 오픈 이후 2주 만에 4,000만 원이 모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업화할 생각 없이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작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7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치료비용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공상 불승인 소방관들의 1차 소송비로 쓰이도록 지원했죠.”

두 명의 암 투병 소방관에게 기부금이 전달된 후 ‘세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던 이 대표에게 세상은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맛보게 했다. 두 소방관이 소송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연이어 세상을 떠난 것. 허무함과 좌절감이 밀려와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라고 방황하던 순간, 그를 다시 붙잡은 것은 고 김범석 소방관 아버지의 고맙다는 전화였다. 그는 “소방관들의 상황이 변하기 위해서는 단기 프로젝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

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꾸리는 방향으로 마음먹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119레오는 현재 사진 전시회, 소방관과의 토크콘서트 등 문화 행사도 함께하고 있다.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계속 이 일을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프로젝트 시작 2년만인 지난해 119레오를 법인으로 등록했다.

수익금 50% 기부, 전시회·토크콘서트 등 문화 행사도

현재 순수익의 50%를 기부하고 있는 119레오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누적 기부액 2,0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진출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 입점도 목표로 한다. 이 대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방화복이 없어 소방관들이 우비를 입고 화재 현장에 나선다.”라며 “전 세계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해 제품화하고, 그 수익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방화복을 공급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건국대 건축학과를 휴학 중인 이 대표는 사업이 안정화된 후 복학할 예정이다.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로 동아리에 지원한 그는 20살 대학생에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창업가로 성장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세상이 바뀌어있지 않을까요?”

수학여행에서 만난 산불, 위기 탈출 비결은?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 수학여행을 중단하고 귀교한 현화중학교의 긴박했던 사연이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인근에 발생한 산불을 피해 199명의 학생들이 재빨리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 한 대에 불이 붙었으나 신속한 대피로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며, 사전 안전교육 덕분에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칭찬이 이어졌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지만, 돌이켜보면 재난이 현화중학교를 피해간 것이 아니라 현화중 학생과 교사들이 재난을 잘 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긴박했던 그날의 기억

학급별 장기자랑으로 레크리에이션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고 있을 무렵 고성 산불을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가 올랐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질서를 지켜 신속하게 대피하라.”라는 교감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학생들은 반 별로 줄을 지어 지하 강당을 나와 건물 밖으로 이동하였다. 치솟은 불길로 먼발치의 하늘이 붉게 이글거리고 있었고 강풍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기도 쉽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단 몇 분 만에 전원 버스에 탑승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장소에서 10km쯤 떨어진 숙소에도 대피령이 내려진 관계로 귀교를 서둘렀으나, 불길은 금세 강풍을 타고 속초 시내까지 번졌고 날아든 불씨에 7반 버스 후미에 불이 붙었다. 타는 냄새가 나고 버스의 시동이 꺼지며 전원이 차단되자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버스기사와 안전요원이 서둘러 수동개폐장치로 출입문을 열었다. 교사의 인솔에 따라 학생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버스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으며, 이후 버스는 전소되고 말았다.

훈련 통해 안전 몸으로 익힌다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부상자 없이 전원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학여행 출발 전인 3월 20일 제410차 민방위의 날 실시한 화재대피훈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건물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학생들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낮춘 채 2열로 줄지어 체육관으로 이동하였다.

사전에 담임교사의 안전지도 및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영상 교육을 통해 화재 시 비상 대피 경로와 대피 요령을 숙지한 학생들은 지정장소에 빠르게 집결하여 일사불란하게 인원 보고를 하였다. 참여 우수 학급에 칭찬 포인트를 주기로 한 것이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고, 대피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훈련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재대피훈련을 통해 체득한 재난 대응 역량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여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었다.

3월 28일 실시한 심폐소생술 연수, 29일 실시한 인솔교사 안전연수 및 응급처치 교육 또한 교사들의 침착하고 적절한 대응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체험학습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각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실질적인 연수를 진행하였다. 진지하게 연수에 참여한 인솔교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안 대응을 위해 ‘학교안전관리 계획’을 지참하고 수학여행 길에 올랐으며, 산불 대피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학생이 과호흡 증상을 보이자 연수 시간에 익힌 방법으로 안정적인 호흡을 유도했다는 담임교사도 있었다.

또한 안전요원 팀장들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버스 안전사고, 체험활동별 안전사고, 숙소 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전요원 준수사항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안전요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 것도 위급 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봄날의 수학여행에서 끔찍한 산불을 만났던 학생들에게 그날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 급하게 마침표를 찍게 된 수학여행에 대한 아쉬움, 난생 처음 대면한 큰 재난에 두려웠던 선명한 기억과 더불어 평소 안전의식을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야겠다는 다짐들도 마음 속 깊이 새겼을 것이다. 아이들이 어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㉞

12 현화중학교 사전 안전교육
3 수학여행 당시 산불로 전소된 버스



아셈교육장관회의의 성과와 과제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아셈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한 박백범 차관(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아시아와 유럽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문명의 발달을 이끌어 왔다. 농업혁명도 산업혁명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 인류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의 이런 기여는 이들 대륙이 일찍부터 교육에 힘을 쏟았기에 가능했다.

인류가 생존하는 한, 교육은 영원히 중요한 과제이며 세상에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모든 나라는 각자의 교육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이렇게 각국이 가진 교육이 국제무대를 오가며 서로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핵심 요소인 교육의 국가 간 교류는 개별 국가의 발전을 위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영을 위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아셈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수장 및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셈교육장관회의의 개최 경과

아셈(ASEM)은 아시아와 유럽 회의(Asia-Europe Meeting)의 약자로, 교육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의 정치, 경제 등 각 분야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96년부터 시작된 지역 간 국제협의체이다. ASEM 회원국은 아시아 21개국과 유럽 30

개국 총 51개국이며, EU집행위원회와 ASEAN 사무국이 포함된다. 아셈교육장관회의는 제6차 아셈정상회의(06.9, 핀란드 헬싱키)에서 아시아-유럽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2008년 5월 제1회 아셈교육장관회의가 독일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5월 제2차 아셈교육장관회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고 이때부터 2년마다 아셈교육장관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1차는 독일, 2차는 베트남, 3차는 덴마크(2011.5), 4차는 말레이시아(2013.5), 5차는 라트비아(2015.4), 6차는 한국(2017.11), 7차는 루마니아(2019.5)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는 아시아-유럽 간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이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8차 아셈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에서 열릴 차례이며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7차 아셈장관회의의 주요 내용

올해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5월15~16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올해 회의에서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과 상호 학위 인정, 산학협력, 균형적 인적교류 및 평생교육의 강화와 함께 모든 이들을 위한 포용

적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의 투명성과 호환성 확보와 상호 신뢰 구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의 질 보장과 상호학위 인정은 아시아-유럽 간 상호 인적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발표를 통해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의 자격 및 학점인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NIC(국가정보센터)를 2019년 5월 지정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유럽의 균형적 인적교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유네스코 측에서는 매우 높게 평가했다.

산학협력은 고용증진, 기업가정신 배양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숙련 노동자 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요 관심 사항은 학계와 산업계의 왕래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아시아-유럽 내 전문적 능력개발과 상호 문화적 교육 강화, 모범사례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등교육 국제화로 아시아-유럽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 진행하고 있으나 유럽에서 공부하는 아시아 학생 수가 아시아에서 공부하는 유럽의 학생 수보다 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시아-유럽 간 균형적 인적교류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백범 차관은 우리나라 주도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19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의 균형적 인적교류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ASEM-DUO 장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동 프로그램에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한국, 싱가포르, 태국, 스웨덴, 벨기에/플레미시, 벨기에/왈로니아 6개국이 기금 공여국으로 참여하며, '18년까지 총

3,600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 교류 지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20만 유로, 매년 200명 규모로 ASEM-DUO에 참여하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평생교육은 디지털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에 대한 관심 증대가 필요함에 동의했다. 평생교육의 강화와 국가 간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ICT 활용의 중용성에 대해 회원국 모두가 동의했으며, 우수한 학습 자원을 무료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MOOC의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 보장' 논의 필요

유엔과 유네스코에서는 '모든 이를 위한 포용과 지속 그리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백범 차관은 회의에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신설(1,080), 국가 기초학력책임제(한글·수학·영어), 고교무상교육 도입,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스팀(STEAM), 소프트웨어 교육, 민주시민 교육, 예술 등 문재인 정부의 '포용과 혁신으로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어느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며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포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아셈교육장관회의에서도 UN 2030 Agenda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SDG4의 목표인 '모든 이에게 포용 평등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아셈 회원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적교류의 불균형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교류 기회 확대 등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 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文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

“유·초·중등교육 공공성 확대, 교육 거버넌스 개편 논의 필요”

**국공립 유치원 확대·회계 투명화 긍정적
고등교육 부문 예산 증가율 가장 낮아
“대통령, 국교위 설치 의지 없다” 쓴소리도**

올해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의 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지난 5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을 열고 유·초·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교육 거버넌스 등 각 분야 교육 정책의 성과를 검토했다. 먼저 학교급별 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교육 거버넌스 분야의 향후 전망과 관련한 다섯 개의 발제가 진행된 이후 각 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골자는 교육의 공공성 확대다. 장명립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 확충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초등돌봄 교실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김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과 과정 중심 평가, 맞춤형 교육 선도·시범학교 및 두드림학교를 통한 기초학력보장을 성과로 평가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단순히 운영 학교의 증가나 만족도를 가지고 기초학력보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을 짚었다.

김성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미래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면서도 “예산 마련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내세웠다.

정책 일관성·질적 내실화 위한 모니터링 강조돼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은 3.42%로 이전 정부보다 증가했지만, 유·초·중등교육(10.15%) 부문이나 평생직업교육(9.55%) 부문에 비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각각 5,688억 원과 2,908억 원이 지원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꼽혔다. 또,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대학생 기숙사 확충도 성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쓴소리가 이어진 부분은 교육 거버넌스 분야다. 교육의 탈정치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설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집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입법화했어야 할 사안인데, 국교위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여전히 확인할 수 없다.”며 “국교위를 매개로 한 거버넌스 개편이 난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국교위 설치 시 교육부의 기능 개편을 비롯해 국교위와 기존 대통령교육정책 자문기구와의 차이점, 구성 방식 등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②

[표] 교육 분야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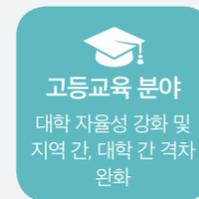
- **국공립 유치원 확대** : '17년 25% 수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19년 1,080학급 확충 29% 달성함. '22년 40% 달성이라는 목표를 조기('21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
- **투명한 회계 운영**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1단계 의무도입 99.6% 달성
-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9개 지자체의 온종일 돌봄기관 35개소 및 이용학생 786명 확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구축·운영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연구·선도학교 확대 '18년 105교→'19년 342교), 직업계고부터 학점제 우선 도입('18년 23교→'19년 100교),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 향후 과제** ① 공립 및 사립유치원 설립 유형 다양화 ② 국공립 유치원 균형적 확충 및 서비스 개선 ③ 수요자 편의 고려한 돌봄서비스 플랫폼 구축



-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종합적 제시
-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 현장실습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학생 보호 및 권익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 전공 적합도 및 학생만족도 제고, 중도 복귀 감소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마이스터고를 통한 직업계고 선도모델 육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기반 모델 취업을 지속적으로 증가

- 향후 과제** ①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 구축 ② 후학습 활성화 등 고졸 취업 성공적 정착 위한 역량 집중 ③ 직업교육 분야 교원의 전문성 제고



- **국립대학-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국립대학육성사업** : PoINT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 국립대의 공적 역할 강화 (대상: 18개교→전체 국립대, 사업기간: 2년→5년)
- **대학혁신지원사업**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 자율성 보장 방향으로 개선
- **LINC+ 육성사업** : 현장적응력 높은 인재 양성, 취업난 및 구인난 해소
- **등록금 및 학비감면 지원** :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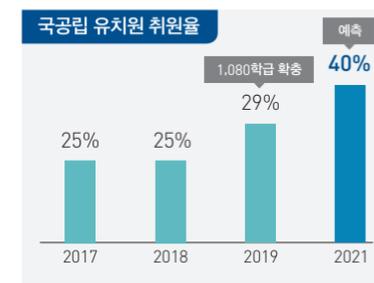
- 향후 과제** 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실제 배분 성과 및 효과 분석 ② 재정지원 관련 대학 간 불균형 격차 해소 ③ 대학 수입 감소 및 대학교육 질 관리 문제 해결



- 국가 수준 교육개혁 및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논의
-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국회 토론회 개최, 법률안 발의 등 국교위 설치 추진

- 향후 과제** ① 국회 심의 의결 거쳐 국교위 출범 ② 2030 교육체제 수립 준비 ③ 풀뿌리 교육 자치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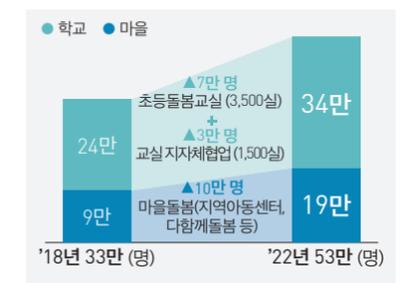
[그림1] 유아교육 공교육 강화



[그림2] 교육부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그림3]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대학 산학협력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 기업과 연구소 품고 지역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거듭

대학 내 기업·연구소 입주 공간구성 교수·학생 기업의 문제해결 지원 기업, 학생·창업자에 지식·노하우 전수

바야흐로 혁신의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와 함께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요구라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인재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해짐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 '대학'

대학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명실상부한 경제적·사회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학생과 교수가 한 데 모인 공간으로, 각종 특허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과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집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에 위치하여 많은 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MIT·스탠퍼드, 중국 베이징대 등 우수 대학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인재를 배출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대내외 성장정체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동시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도심형 입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앞둔 초기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대학과 기업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동반성장 기회를 찾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서로 적극 협업하여 위기를 새로운 기회 창출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유휴공간을 기업에 제공하고,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기술이 모여 있는 대학에 입주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앞에 두고, 혁신역량을 갖춘 두 주체가 모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의 융합을 시도한다

대학과 기업이 보다 쉽게 공간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다양한 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학이 기존의 유휴시설을 산업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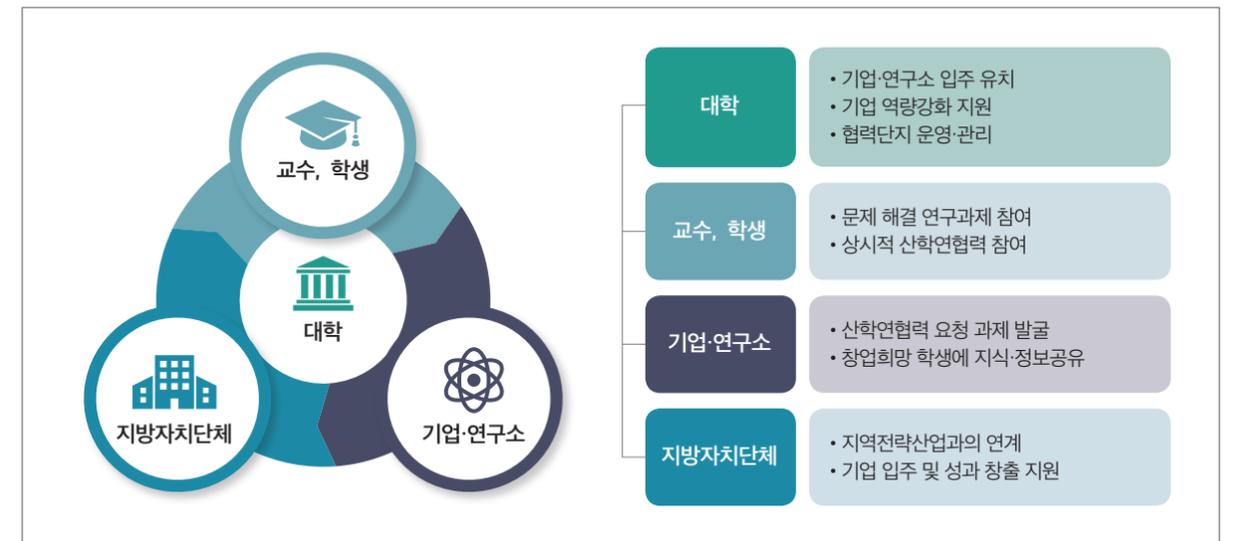
성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통과한 한양대 ERICA·부경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각 대학의 발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과 연구소가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한편, 기업이 공동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교수와 학생이 나서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고,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과제를 꾸준히 발굴한다. 입주기업은 학생과 창업가들에게 기업 활동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는 데에 힘을 보탠다.

유휴시설 리모델링에서 더 나아가, 대학부지 일부를 산업단지의 한 유형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 맞게 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용 전기·수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단지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도 기대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더불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

인 산학연 혁신허브, 재학생과 기업 종사자 등 산학연협력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편의시설 건축도 함께 지원한다. 안정된 인프라 위에서 입주기업은 대학의 산학연협력 지원과 함께 다양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기업을 품고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산학연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데에 핵심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지식의 보고인 대학과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다가올 산학연협력의 모습은 이와 같다. 대학과 기업이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상호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학생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것이다. 적극적인 창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대학은 배움터·일터·삶터가 조화된 산학협력 생태계로 재탄생할 것이다. ②

[그림]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 모델



장애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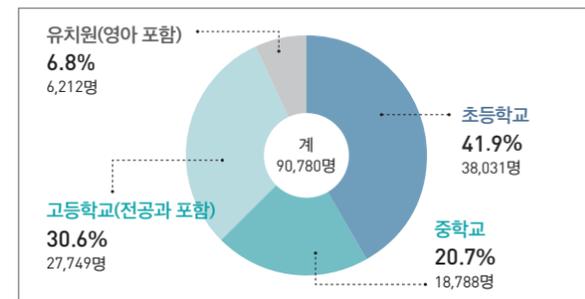
2018년 12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 여건과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장애의 유무가 교육 기회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곧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교육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출발선 평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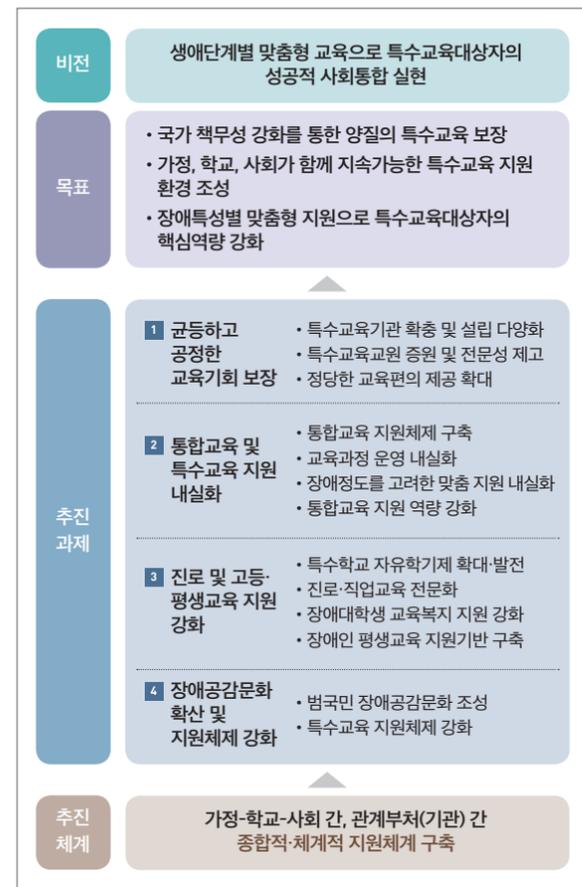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2008. 5. 26.) 이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1년 이상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와 만3세 미만 영아는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

[그림1]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18년 기준)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특수교육 분야에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그림2] 제5차 특수교육 발전 계획의 비전과 목표



특수교육정책과의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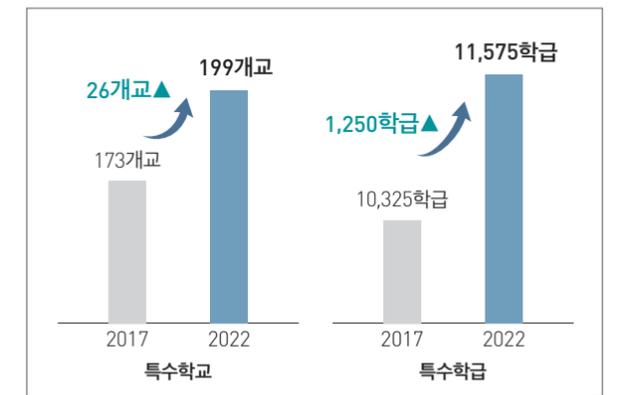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교사 증원 등을 추진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및 특수교육기관 부족에 따른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특수학교는 26개교 이상,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1,250학급 이상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유아단계부터 통합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유아반과 비장애유아반이 일대 일로 통합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 설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특수학교 신설 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국립대학 부설 특성화(직업·예술)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각급 학교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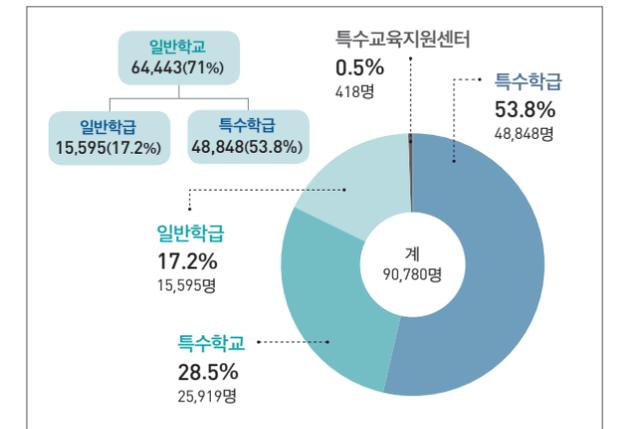
둘째,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2019년 현재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약 72%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보장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핵심역량 강화

[그림3]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 계획



[그림4] 교육기관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18년 기준)



한 ‘정다운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통합교육 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가 더 이상 교육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두고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일반교사 컨설팅 등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드라마 등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장애학생 예술활동 지원 및 장애공감 음악회 개최 등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요소로, 향후에도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12월에 수립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은 인권침해 대응체계 강화,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인권보호 여건 개선, 장애학생 및 관계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등 5개 핵심과제에 따른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수교육정책과는 이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겨나가고 있으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견수렴단을 운영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섯째, 관계부처(기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 정보화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방과후 교육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 1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이러한 연계가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성을 가지고 의무·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가 더 이상 교육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늘어나는 학교폭력, 해결책은?
**출석 인정 등 피해학생 보호 확대
교육적 해결·학생 간 관계회복 집중**



패널 김용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조원표 경기 소안초등학교 부장교사
박은희 전 한바다중학교 교육복지사
사회 : 이순이 편집장

일시 2019년 5월 30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용산역 회의실
정리 양지선 기자

최근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등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괴로움을 토로하며, 일선 교사들 역시 늘어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와 예방교육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폭력 개념 및 실태



사회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부터 정의해주시죠.



김용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르침을 주자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신체·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준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1.3%로 2017년 0.9%에 비해 0.4%p 증가했습니다.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지만, 이는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은 17년 1차 11.7%에서 10.0%로 1.7%p가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각각 34.7%, 17.2%로 0.6%p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이 9.8%에서 10.8%로 1.0%p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신체폭행 비율보다 높아졌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체·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온라인 공간의 폭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최근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학교폭력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희

저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공립중학교 교육복지사로서 학교폭력사건의 발견·해결·사후관리 등을 담당 또는 지원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동성 또는 이성간), 집단따돌림,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사폭행 학생, 학교물품 파손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개입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행성 혈관종(온몸에 검붉은 고춧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피부)으로 인해 한여름에도 두꺼운 살색 스타킹과 긴팔 블라우스를 입는 여학생 A양.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같은 반 친구들이 침을 뱉거나 가방을 던지는 등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함.

해결 : 학생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진행, 사행성 혈관종 치료를 위해 지역복지재단에 지속적으로 의뢰해 치료비 3,000만원 지원받음. 지역 대학병원 직접연계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목·팔·다리부분 치료. 이후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여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사건은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어느 한 명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피해자를 도와줬다가 나도 당할까 두렵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학교폭력을 한 번만 당해도 충격이 큰데, 지속해서 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심각한 피해를 준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데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조원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업무처리 매뉴얼이 있지만, 가·피해학생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사안 해결이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목격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해서 사안 조사를 해보면, 가해학생만의 잘못이 아니거나 피해학생도 또 다른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악성 댓글, 메시지를 활용한 사이버 괴롭힘 등의 사이버폭력이 많은데,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 진술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책임교사는 한 명인데, 여러 학교가 관여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 많아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안 조사에 집중하다 보면 수업에 전념하기 힘듭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선된 학교폭력 대응절차 제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지난 1월 30일 발표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①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자체해결제도 ②자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③가해학생 조치(1~3호)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 등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사사로운 분쟁과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선도적인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해결제는 먼저 피해학생 측 동기가 필수사항이며, 4가지 조건(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아닐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성이 없을 것, 피해가 즉시 복구된 경우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은폐축소나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위 이관은 단위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자치위를 이관함으로써 위원들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인력, 조직, 예산 등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1~3호)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은 조치사항 이행률 전제로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재발 시 그 전의 조치기록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희망 시 바로 조치가 이뤄집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입학교장이 전학 허가 여부를 결정해, 학생정원 초과 또는 교육과정 이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전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피해학생이 출석인정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폭력 사전대응 및 예방교육 방법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학교에서는 어떤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조원표

학교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현장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안초등학교는 2018학년도 교육부 언어문화 선도학교로 지정돼 매월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다함께 존중어 사용하는 날'을 정해서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색해서 머뭇거리며 사용을 주저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존중어를 사용하니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구사랑 주간'을 정하여 모든 학급별로 '사과편지 쓰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는 행사입니다. 교내에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전교어린이회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일부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① 개인상담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내 및 가정방문 상담
- ② 집단상담 : 성향분석 및 또래성향 이해하기, 역사사지 집단상담 등
- ③ 학생 심리검사(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K-CBWL 아동행동평가척도 등 실시) : 1차 검사지 검사를 통한 위험군 학생 발견 / 2차 대면상담을 통한 위험군 학생 파악 / 3차 병원진료를 통한 진단 및 치료
- ④ 생활지도연계 학교폭력예방 상벌점제 실시 : 교내 체육대회 학급점수를 상벌점제와 연계함. 이는 학교폭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음.
- ⑤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 또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활동.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훈련 등을 받음.
- ⑥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캠프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숲치유 프로그램.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인터넷 중독, 우울증,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과 가치관 교육, 학교 적응력 향상 등을 목표로 운영됨.
- ⑦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후 학생상담 진행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에 관해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극공연, 변호사 또는 경찰이 진행하는 특강, PPT 또는 동영상 활용 교육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난해 어울림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역량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검증된 만큼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와 연계를 통해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어울림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역량별 16종, 유형별 12종)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주년을 매년 지정하여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도연수원 원격연수과정에 어울림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도 및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운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무척 중요한데요.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죠.



김용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4개 학교급별(초·중·고)로 공감을 통한 관계개선, 신뢰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감정조절을 통한 갈등해결, 내 자녀의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총 5차시 교육을 학부모 온누리 온라인교육센터(edu.parents.go.kr) 및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www.edunet.net/nedu/doran)에 탑재했습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고 양성된 재원은 다시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 강사 140여 명,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 명,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교육 강사 1,9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모든 학부모가 질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 학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고,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이 강화되면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대응이 아닌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가·피해자를 낙인찍기보다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박은희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서로 공감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변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긍정적 에너지 표출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교사에게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원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올바른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양육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면 긍정적으로 욕구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자치활동도 학교폭력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사결정 기회를 갖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된다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김용준

학교폭력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학생 간의 관계회복입니다. 단순한 처벌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계회복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화해분쟁조정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올해 관계회복 프로그램(교사용, 학생용)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일선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조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전문가 선발 공고를 진행했고, 선발된 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연수도 7~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현장에 투입되어 분쟁조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수학 시간에 토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 수학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 원주 복원중학교(교장 이한호)의 수학 수업은 우리가 알던 보통의 수학 시간과는 좀 다르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개념을 찾고,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장한다. 이 학교 수학 교과를 담당하는 심희원 교사는 모둠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토론을 부추기는 역할만 한다. 문제 풀이 위주가 아닌, 스스로 개념을 찾아가는 수업. 그래서 복원중학교 수학 시간은 늘 시끌벅적하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낯설었을 거예요. 학원에서 달달 외운 공식도 도움이 안 되고, 혼자서 문제를 잘 풀던 학생도 친구들

에게 개념을 설명할 때는 탁 막혀 어려움을 토로했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던 아이들이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수업 시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편해진 것이다. 수학을 잘하건 못하건 모둠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곧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는 학생도 없어졌다고. “빨리 계산하는 건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 좀 늦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며 해답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뛰어날 거라 확신합니다. 친구들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배운 결과이겠지요.”

복원중학교의 수학 수업이 이렇게 바뀐 것은 2017년 ‘수학의 발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발간)이라는 대안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서부터다. 강원도교육청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을 목표로 2년간 대안교과서 연구 개발에 참여했다. 도내 수학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69개교 1, 2학년 학생 1만여 명에게 대안 수학교과서를 보급했으며, 교사 대상 관련 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지역 폐교, 캠핑장 등 핫 플레이스로 변신



전남의 폐교가 캠핑장, 문화 체험관, 지역 복지센터 등으로 활용되며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여수 굴전초등학교는 남해안의 수려한 해상 관광자원을 활용해 ‘굴전여가캠핑장’으로 탈바꿈, 캠핑족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캠핑장이 되고 있다.

청산중동분교장은 슬로푸드 체험관, 테마 북촌형 숙박시설, 생태연못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시설로 리모델링돼 ‘청산도 느린

섬 여행학교’로 재탄생,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아당기고 있다.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변신한 학교도 있다. 승주초 구강분교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과체험, 공방체험, 농촌체험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랑복지학교’로 변신했다. 광양진월중 진중분교장도 식당, 카페, 도자기·염색 체험관을 갖춘 도농교류센터로 활용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체류형 농촌 관광지로 뜨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소득증대시설 또는 공동이용 시설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상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임호고, 키르기스스탄과 국제교육교류



김해임호고등 학교(교장 심재 일)가 키르기스 스탄 비쉬켈 2 번학교와의 국 제 교육 교류를 추진한다. 이번 국제교육교류는 단기적으로는 키르기스스탄과 교육 및 문화 교류를 통한 글로벌 리더 육성을,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 적·물적 교류를 통한 교육공동체 상호 발전을 목표로 한다. 키르기스스탄 방문단은 지난 5월 7~12일의 일정으로 김해임 호고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 행복마을 학교, 지혜의 바다 도서

관, 경남수학과학체험관 등을 견학했다. 김해임호고 학생 가 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일상적인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볼 기회도 가졌다. 한편, 김해임호고 학생들도 오는 8월 26~31일 직접 키르기스 스탄과 비쉬켈 2번학교를 방문할 예정으로, 두 국가 학생들의 깊이 있는 교육 및 문화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할 예정 인 2학년 정원규 학생은 “평소 친숙하지 않은 나라와의 국제 교육교류를 통해 세계 속 한국과 김해를 알리고 다양한 문화 를 익히며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해 참여했다. 앞으로 만날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 고 말했다.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서 세계 문화 탐방을



이곳은 문화다양성교육과 상호의존, 평화, 환경, 지구촌 공동 체 의식 등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곳이다. 학생들은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함께 국악기

를 배우며 끼를 발산하는 글로벌국악단,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외의 선진 문화를 탐방하는 글로벌 개척 프로젝트도 운영된다. 여러 나라의 악기, 놀이, 의상 등을 학교 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세계테마꾸러미는 다양한 문 화존중교육의 교구로 이용될 예정이다. 대구미래역량교육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세계시민교 육센터는 한 국가에 한정된 국민 교육에서 벗어나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고민하고 참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한다는 측면 에서 대구미래교육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진흥고, 학생 꿈 키우는 진로 프로그램 개최



광주 진 흥 고 등 학교(교장 이왕 규)가 지난 5월 22일 진로 행사 의 일환으로 ‘꿈 나무 퍼포먼스’ 와 ‘꿈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화전을 개최했다. 꿈나무 퍼포먼스는 학생들이 본인이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과 포부가 기록된 꿈 카드를 직 접 교내외의 나무들 사이에 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목표의식 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꿈과 사랑’ 시화전은 등굣 길에 전시돼 지역주민들에게도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흥겨움을 더하는 버스 킹, ‘꿈’을 테마로 하는 영상 감상, 학생회장의 선창에 따라 ‘꿈 은 이루어진다’의 구호 삼창, 축하그룹공연 순으로 꿈과 사랑 의 퍼포먼스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각 학급 교실에서는 전 문성과 경험을 지닌 각계각층의 직업인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 이 이루어졌으며, 시청각실에서는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해 학생 들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광주진흥고는 교육부가 선정한 창의·경영 운영학교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월마다 진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입시 위주의 진학지도가 우선시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생동감 넘치는 예술 융합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업적 성취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도 고양시키는 기회가 되 고 있다.



두루고의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젝트

두루고등학교(교장 박희동)가 다채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으 로 주목받고 있다. 두루고의 ‘사제동행 인성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8개월간의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 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제동행 하이파이브 △사제 동행 인성 칼럼 △두루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진행한다.

사제동행 하이파이브는 아침 등굣길 교문에서 선생님들이 학 생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반갑게 손뼉을 마주치며 격려 하는 인성교육 활동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쑥스러워하던 학생 들도 선생님들과의 하이파이브를 통해 사제 간의 친밀감도 깊 어지고 신뢰도 두터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사제동행 인성 칼럼은 학급담임과 학생들이 다문화, 내적 가 치, 공동선, 배려 등을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느낀 점을 발표 하며, 자율적이고 관용적인 사제 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 고 개개인의 내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인성교육 활동이다.

두루 독서 프로그램은 저자 초청 별밤독서캠프, 학부모와 함께 하는 내 마음의 시어(詩語) 캘리그래피 쓰기, 캠프 및 독서감상 문 쓰기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 고 책과 친해지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박희동 교장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며 “지성과 더불어 바른 인성까지 갖 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라고 말했다. ㉠



교육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교육서비스의 필요성과 도입 전망

미래 핵심 역량과 지능정보 기술

2010년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코닥, GM 등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 추락하거나 위기를 맞이했고, 애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혁신적인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는 큰 변화를 겪었다. 산업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일컫는 지능정보사회로 진화해가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또 한 번 사회 전반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알파고, 왓슨 등 인공지능 관련 최근 기사만 보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닥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지능형 교육서비스의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능정보사회는 복잡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식·기술 습득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창의성·융합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산업사회 인력양성 모델과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으로는 이러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

교육 효과 측면에서 ‘개인교습’이 최적의 교육 모델로 알려졌으나 현행 교실학습 교육체계에서는 개인지도 형태의 학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알고리즘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교육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된 셈이다.

빅데이터 기반 교육 서비스 도입의 당위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는지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최적의 학습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앞세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양성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 혁신의 변화를 이끌 인자는 ‘교육 빅데이터’이다. 교육 빅데이터는 ‘학습자, 교수자, 행정가 등의 온라인 과 오프라인 교육 활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학교, 교육청, 국가 단위의 각종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와 교육청 단위 데이터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 단위 데이터는 학업성취 미달 학생 지도와 교육 방법 및 내용을 개선하는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학생·학부모는 개별 학습 및 자기 진단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다.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교육 분야를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 패러다임(지능정보사회), 고용구조(일자리 감소), 미래 인재 요건(창의력, 문제해결력)의 변화로 인해 지난 100년간 똑같이 교실에 앉아 선생님을 바라보며 일방적 수업을 받던 학교가 드디어 변화의 급변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정보기술(IT)이 교육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왔다면, 미래 지능정보기술은 교육 주체들 간 관계와 교육 시스템, 교육 환경, 학교 제도 자체에 이르기까지

교수·학습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개별 학습자나 학습 집단의 구체적인 학습활동 과정에 집중하여 학습자 행동 예측, 지능형 콘텐츠 제공 등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에 의미가 있다.



지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지능정보기술은 미래 교육을 ‘개별화’, ‘체험화(실감형 콘텐츠)’, ‘로봇화(인공지능 조교)’ 형태로 진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개별화’는 다양한 학습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을 의미한다.

나이스(NEIS) 능가하는 지능형 교육플랫폼 도입해야

그러나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습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교육 혁신의 핵심 인자인 교육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방법이 한 방향 중심이어서 학습자의 학습 태도, 인식, 행동 등 다양한 학습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 학습 과정, 학습 담화, 소셜 학습 데이터가 왕성하게 생산되고 축적되려면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둘째, 일부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수자의 에듀테크 수용력이 떨어져 학습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교수자가 능동적으로 모바일 단말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다양한 온라인 학습지원 도구를 사용할 때 유의미한 학습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교수자의 지속적인 에듀테크 수용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대부분은 단편적이거나 공교육 울타리 밖의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

부분 학생들의 학습 행동 데이터도 교육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다. 학생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 처방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온·오프라인 통합 ‘지능형 교육플랫폼’ 또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이유이다.

교수·학습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개별 학습자나 학습 집단의 구체적인 학습활동 과정에 집중하여 학습자 행동 예측, 지능형 콘텐츠 제공 등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에 의미가 있다. 능동적인 교육 빅데이터 활용은 교육계가 데이터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다. 하루빨리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양성되길 기대한다. ②

참고문헌

- JRC, Research Evidence on the use of Learning Analytics, 2016
- UNESCO. Learning Analytics Policy Brief, 2012
- 교육부, 2019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2018.12
- 김진숙, 학습자 맞춤형 학습 실현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한국교육신문, 2017.3
- 윤유동 외, 학습 분석 및 교육용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방형 소셜 러닝 플랫폼 개발,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49-1351, 2015
- 정윤혁, 빅데이터와 교육분석 (Education Analytics), 미디어와 교육, 5(1), 44-49, 2015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 사회에 지능을 더하다(교육분야), 2017.8

미래교육을 위한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방법



‘데이터(Data)’와 ‘분석(Analytics)’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하나일 때보다 함께일 때 온전한 느낌을 준다.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빠른 처리가 가능해지면서부터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즉,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분석인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점, 그리고 데이터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미래교육의 안목을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능성, 데이터 과학자라면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의 관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분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석하는 이유, 분석의 시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석의 시점을 통해 구분하고 있는 Analytics 1.0은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다. 즉, 미래적 예측보다는 과거를 정리하여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용되는 데이터도 한정적이었다. Analytics 2.0은 보다 미래적이다. 핵심 키워드는 빅데이터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고, 데이터가 같은 역동성을 반영한다. 즉, 발생한 일에 대한 이유를 넘어 예외적 상황을 감지하고, 향후 추세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Analytics 3.0 혹은 4.0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교육에서도 활

용할 수 있을까? 학습자의 학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한 기반기술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습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기술의 빠른 발전과 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성향과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는 학습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진로를 위한 수업 추천이나 교육과정 추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적응형 학습을 이끌고, 맞춤형으로 개인화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한 것이다. 즉, 기존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동일한 환경을 고려하였다. 동일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 집중하였다. 특정 목적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데이터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의미를 찾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데이터 축적의 한계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면, 이후의 활동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을 지원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퍼듀대(Purdue University)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지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

시간으로 분석하여 수업 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행동 분석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정교한 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축적은 곧 학습자의 학습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 Arizona State University)는 학생들이 소지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재학생들의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학생들의 학업지원 뿐 아니라 맞춤형 지도체계를 갖추었다. 호주 통합사이버대학(OUA, Open Universities Australia)은 온라인 학습 환경 및 지원 시스템에 학습관리시스템과 교육과정 프로파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진도 추적, 학습활동 권고, 코스 추천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 과학자라면

확보된 데이터들은 구조화해서 분석하며, 적절한 통계적 모델링을 통한 예측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습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하는 핀란드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머지않은 시일에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데이터를 통한 예측은 더 나은 선택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미래교육을 위한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에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한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통해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의 측면보다는

분석된 결과가 의미하는 것,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넘쳐나는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데이터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학생을 서열화하고 분리하기 위한 용도로의 활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데이터의 활용이 공공성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점, 미래 세대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 미래 세대의 권리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 수집에 대한 충분한 감시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다. 데이터의 수집이나 분석에 집중하여 학생이나 개인의 인격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교육적, 공적 활용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⑦

참고문헌

Deepesh Nair(2018). The Evolution of Analytics with Data. <https://towardsdatascience.com/the-evolution-of-analytics-with-data-8b9908deadd7>

Higher Education Commission (2016), From Bricks to Clicks: the Potential of Data and Analytics in Higher Education. Policy Connect.

Linda Harrington(2016). Analytics 1.0, 2.0, 3.0 AACN Adv Crit Care April-June 27:141-144;

Niall Sclater, Alice Peasgood, Joel Mullan(2016), Learning analytics in higher education, JISC. <https://www.jisc.ac.uk/sites/default/files/learning-analytics-in-he-v3.pdf>. A review of UK and international practice. Read our updated briefing on learning analytics and student success from January 2017 (pdf).

Varun Nemmani (2016). The evolution of Data Analytics :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University of Missouri.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화장하는 아이

요즘 화장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화장은 아이들 사이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화장을 안 하면 친구 사이에서 '왕따'가 된다는데...,
화장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문제 다현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을 좋아해서 손에 핸드폰과 티트를 쥐고 학교에 갈 정도였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비비크림으로 얼굴 톤을 희게 하고 아이 라이너, 블러셔까지 사용하더니 풀 메이크업으로 발전했다. 결국 담임선생님이 다현을 교무실로 불러서 한 말씀 하였다.

“다현아, 우리 학교 교칙을 알고 있지? 색조 화장하면 안 돼.” “선생님,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반 애들도 거의 다 하는데요.” “다른 애들도 하면 안 돼. 그 애들도 하긴 하지만 눈치 봐가며 하지, 너처럼 대놓고 하진 않잖아.” 한 차례 면담이 끝났지만 다현은 바뀌지 않았다. 교칙에 ‘유색 매니큐어, 액세서리, 문신, 피어싱, 귀걸이, 머리 장식품, 색조 화장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도 있어서 단속 기준이 느슨하기도 하고,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다.

다현은 자주 선생님께 불려갔다. 한 번은 귀걸이와 짧은 치마 때문에, 또 한 번은 한쪽 앞이 선글라스로 된 안경을 끼고 갔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이 교칙을 지켜야지.’라는 입장이었고, 다현은 ‘선생님이 나를 찍었다.’라는 불만이 생겨서, 서로 갈등으로 번졌다. 게다가 다현의 부모님도 ‘화장은 취향이니까 선생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관점이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진단 다현이 화장 문제로 의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상담 선생님이 물었다. “다현아, 교칙 위반으로 벌을 받는 중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니?” “담임선생님이 너무 까다로워요. 요즘 화장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다고요.” 다현은 뭐 그런 거로 벌을 주느냐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다. 상담 선생님은 이참에 다른 아이들의 생각도 알아보기 위해서 몇몇 학생들을 불렀다.

“애들아, 요즘 너희들은 화장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한 아이가 말했다.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됐어요. 안 하면 왕따 되는 분위기예요.” 다른 아이가 말했다. “아이돌 때문인 것 같아요. 개들이 우리하고 나이가 같거나 조금 많잖아요. TV에 나오는 걸 보고 ‘와~ 재들 왜 저렇게 예뻐!?’ 하면서 너도나도 따라해요. 시내 나가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민낯으로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요.”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미백이나 티트는 기본이고요. 어른처럼 화장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상담 선생님이 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는 거니?” 반장이 말했다. “자기가 예쁘다고 느끼면 자신감도 생기니까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화장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너무 심한 건 싫고요.” 아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신들도 이 시대가 만들어낸 유행을 따라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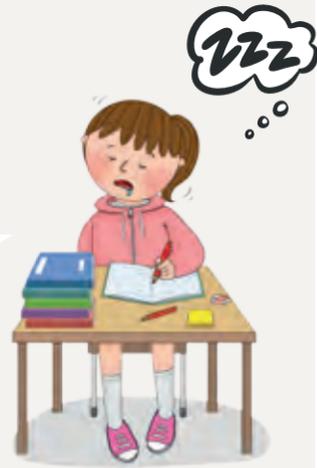
지도 상담 선생님이 다현에게 말했다. “피부색을 밝게 하는 톤업 크림, 비비크림, 컨실러는 사용해도 되겠지. 하지만 진한 립스틱, 색조 화장이나 풀 메이크업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칙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니?” 다현이 말했다. “선도 교육이 끝나면 전학 갈 것 같아요. 아빠가 가게를 옮기신대요.”

다현이 전학 간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느긋하신 중년여성이었다. 다현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유난히 티가 나는 옷차림새에 화장을 하고 나타났지만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짙은 안경을 쓰고 갔을 때 딱 한 번 ‘그거 눈에 좋을까?’ 하였을 뿐이다.

때로 어느 한 가지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큰 문제로 여겨지거나, 혹은 문제 자체로 취급되지 않기도 한다. 10대들의 화장은 어느 쪽일까? 교정하려는 어른과 적절히 수용하는 어른들 사이에 많은 담론을 거쳐서 바람직한 기준을 만드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②

잠들지 않는 교실, 꼭 만들고 싶어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잠들지 않는 교실은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냉혹합니다. 수업 10분쯤 되면 엷드린 학생들이 생겨 그때마다 아이들을 깨우며 돌아다닙니다. 그걸 때마다 수업은 지연되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상황입니다. 교사로서 무관심하기에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선생님처럼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10년, 중학교 20년을 근무하는 동안 저의 고민도 줄곧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가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직 생활 25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의 고민은 거의 정점에 달했습니다.

수업, 우리 모두의 고민

이전까지 저의 학교생활은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신입교사 시절부터 같고닮은 나만의 학급 방식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아이들도 학부모도 저를 꽤나 괜찮은 교사로 평가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10여 년 전 남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교실에 들어가기 싫어졌습니다. 배움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수업을 거절하는 아이들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점점 아이들과

분리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교직생활을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까? 적당한 시점에 명퇴를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번민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선생님들 얼굴엔 한결같이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더군요.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가는 게 즐겁니?"라고 물었을 때, 환하게 웃는 아이를 찾아볼 수 없더군요.

'공부'와 '배움'의 차이

고민이 깊어갈 즈음, 죽어 있는 교실수업을 되살릴 희망의 빛을 만났습니다. 바로 '배움의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한다'라는 기본 철학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배움의공동체 철학을 주창한 사토마나부 교수는

'공부'와 '배움'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공부가 교과서·철관·노트에 의한 좌학(座學)이었다면서, 오직 교사의 설명을 듣고 철관과 교과서를 읽고 이해·기억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규정합니다. 공부가 만남과 대화가 없이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에 의해 학생이 지식과 기능을 축적해 나가는 예금 개념이라면, '배움'은 사물·타자·일·자기 자신과 만나 대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실이 침묵을 넘어 공동묘지로 변해버린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공부'가 학교를 지배해 온 거죠. 침묵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앉아만 있는 교실, 각자 자신의 공부에만 빠져 있는 교실, 이게 바로 오늘날 '공부'하는 학교의 모습이지요. 입은 닫고, 눈은 교과서를 보고, 정리된 지식을 머릿속에 육여넣는 수업.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한때 수업이라면 남 못지않게 잘한다고 자부했던 지난날 제 수업을 뒤돌아보면 순전히 교사 중심 수업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배울 거라 믿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이들은 열심히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기에 수업 시간에 떠들썩하는 아이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공동체를 접하고 그런 생각이 깨졌습니다. 교사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잘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사 수준이 아이들 수준'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교사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아이들이 잘 배우지 못하는 수업은 '뿡'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에서 멀어지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 간단한 걸 모르고 한 시간 내내 게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하는 수업에 스스로 도취해왔던 것입니다.

차츰 안정을 찾아간 수업

물론, 배움의공동체 철학을 기반으로 수업을 바꾸자마자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여전히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모여 앉아서 잡담을 주고받거나 떠들썩한 아이들이 많았지요. 사소한 말다툼으로 모둠활동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초점 없는 눈으로 멍을 때리고 있거나, 영혼을 떠나보낸 채 비몽사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을 보는 것보단 백배 나아섭니다. 마냥 떠들고 노는 것 같아도 마칠 때쯤이면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풀어본 흔적을 남기더군요. 다행히,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각종 연수를 쫓아다니고, 다른 분들의 수업을 보고 배우는 동안 제 수업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교사의 행복은 수업에서

선생님께 들려드린 제 수업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년 교사생활에서 제가 깨우친 진리는 '수업이 즐겁지 않은 교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수업으로 웃고, 수업으로 우는 존재입니다. 내 맘 알아주지 않는 아이들 탓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변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수업을 어떻게 바꿔갈까에 대해 함께 배우는 교사로 성장하시길 빕니다. ②



1 광한루
2 완월정



달과 꽃의 도시, 남원

이제 막 고개를 내민 초승달이 시야에 맺힌다. 노란 달을 품은 검은 눈동자가 물결이 되어 넘실거린다. 처얼썩, 처얼썩. 눈 위에서 은빛 달이 일렁인다. 따사로운 여름 햇살이 내 것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사방이 생기로 충만한데 그게 나오는 멀어 보일 때, 그리하여 홀로 침잠해 인생을 관조해 보고 싶어질 때, 그럴 때면 달을 따라 무작정 도로를 달린다. 청량한 바람 속에 습관처럼 중얼거리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음악 ‘What is a Youth’ 때문이었을까. 그 곡이 던진 ‘사랑’이라는 화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달에 깃든 사랑 때문이었을까. 충동적으로 나선 2019년 여름 초입의 여행지는 남원이다.

땅 위에 자리 잡은 월궁, 광한루

달과 나란히 달려 남원에 도착한다. 도시는 어둠을 머금고 있다. 요천(蓼川)을 지나 광한루원에 이른다.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불리는 광한루는 황희가 산수를 즐기던 곳으로 유명했다. 이후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빼어난 이곳 경치를 일러 달나라 미인 항아의 월궁인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라 칭한 것을 계기로 ‘광한루’라 불리게 되었다.

땅 위에 자리 잡은 월궁이라고도 하는 광한루를 찾아 들어간다. 빛으로 장식된 단청이 광한루원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다. 빛을 음미하듯 천천히 걸어 광한루에 이른다. 달나라 월궁과 지상의 월궁이 호수를 경계로 맞닿아 있다. 물속 광한루와 물 밖 누각이 빛어내는 장관에 눈이 시리다. 티끌만큼의 일그러짐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이 눈앞에 있다. 어둠이 있어 빛이 생명을 가질 수 있듯 삶 또한 결핍을 배경으로 채움을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깨우침이 가슴을 울린다.

오작교로 들어선다. 견우와 직녀의 눈물로 채운 듯한 호수를 건너온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밤의 호수가 소리 없이 검은빛을 뿜어낸다. 저쪽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간절하게 바라던 그 무엇인지, 아마득한 기다림인지 알지 못한 채 발을 움직인다.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진중하게 오작교를 건넌다. 다리 끝에 이르러 뒤를 돌아본다. 춘향과 이몽룡의 누각은 나를 내려다보고 항아의 월궁은 나를 올려다보고, 한 걸음 물러나 마주한 하늘과 땅의 궁전에서 ‘사람은 저 달을 잡을 수 없지만 달은 스스로 사람을 따르누나’고 한 이백의 시를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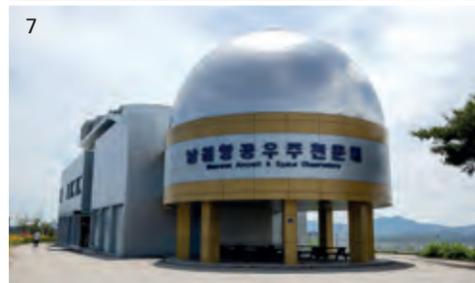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 속 삼신산을 눈에 담은 후 완월정과 춘향사당, 춘향관과 월매집을 돌아 나온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곱씹으며 그네에 오른다. 발 구르기 한 번에 후예와 항아가 불러 나오고, 두 번에 견우와 직녀가 밀려오고, 세 번에 향단과 방자가 쓸려간다. 떨어진 땅이 가까워지고 흐릿했던 별이 선명해지고, 그네 위에 선 나는 어느새 사랑 이야기가 관통하는 시계추가 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달라져도 사랑하는 이를 기리는 마음은 하나라는 울림이 초침 소리가 되어 맺힌다. 사랑가 한 대목을 흥얼거리며 남원 예촌으로 간다. 손거울 하나를 만들어 나와 나무 냄새가 은은히 번지는 한옥에 짐을 푼다. 달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고 문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깊어가는 여름밤을 알려온다.



남원의 옛 이야기가 담긴 춘향테마파크

남원의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맡으며 기분 좋게 눈을 뜬다. 이런 날에는 두 발로 길을 더듬어 가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해도 좋으리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책에 나선 칸트라도 된 듯, 여장을 챙겨 춘향테마파크로 간다. 춘향전을 테마로 만들어진 춘향테마파크는 2004년 5월 1일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만남의 장, 맹약의 장, 사랑과 이별의 장, 시련의 장, 축제의 장을 주제로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구현해내고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테마파크 초입에 이른다. 분수와 춘향전 등장인물을 형상화한 구조물을 지나 향토박물관으로 들어간다. 2,500여 점의 유물로 채워진 향토박물관에는 남원에 관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 남원 연혁을 시작으로 남원에서 발굴된 유물과 남원 태생 명창, 남원의 시린 역사를 훑는다. 강도근, 김정문 등의 명창 이름과 ‘오늘이 오늘이소서’의 노래 탐 사연을 가슴에 담고 나온다. 향토박물관을 벗어나 돌탑, 맹약단, 그네 터로 채워진 맹약의 장을 지나 사랑과 이별의 장으로 간다. 단심정에 올라 남원을 내려다본다. 춘향이 된 듯 멍하니 한숨 짓고 앉았다가 천천히 항공우주천문대로 향한다. 비행기 모형과 행성 그림과 망원경으로 채워진 항공우주천문대에서 달을 만난다. 건물 한쪽에 자리 잡은 달 기원실에서 여정의 시작을 상기한다.

34 춘향테마파크
56 남원향토박물관
7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나를 남원으로 이끈 것은 여름 달이 남긴 ‘침잠’이라는 두 자였다. 기울었다 차오르는 달의 형상을 눈에 담으며 생각한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돌아봄을 게을리하지 않고 묵묵히 나를 곱씹어 내는 것, 그것이 내 속으로의 침잠이 아닐까.

정유재란 의사의 송고한 넋을 기리다

다음 여정은 노래의 탐이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43인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 부른 ‘오늘이 오늘이소서’의 사연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만인의총 앞에서, 도공들의 한이 담긴 노래의 탐 앞에서 고개라도 숙여야 이 딱딱함을 털 수 있을 터, 충렬사에서 향 하나를 피워올리고 역사 위에 손을 덧댄다. 지난날에 건네는 차가운 손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 그마저 하지 않으면 오늘의 의미를 잃을 것 같아 만인의총 앞에서 한 번, 노래의 탐 앞에서 또 한 번, 그렇게 두 번 손을 모아 묵념을 한다.

‘오늘이 오늘이소서, 매일같이 오늘이소서, 저물지도 새지도 말고, 날이 썰지라도 매일같이 오늘이소서.’는 고려부터 정유재란에 이르는 400여 년 동안 남원 지역에서 구비 전승되던 노래였다. 이 노랫말은 『양금신보』에 채록되어 명

맥만 유지해 오다가 일본에 잡혀간 도공들이 그리움을 달래던 곡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금 이 땅에 울려 퍼졌다. 허니 1988년 7월 26일 귀향 음악회에서 못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는 이 곡에 서린 사연이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지나친 감상은 아닌 것이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다. 오늘은 지난 시간 위에 세워진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삶이 역사의 삶이 되어 남았다. 그들의 삶이 덧나지 않도록, 짓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이다.

연분홍 철쭉이 채운 지리산 바래봉

남원은 그대로 떠나기 아쉬워하는 여객을 바래봉으로 안내한다. 승려들의 밥그릇인 바리때를 엮어놓은 것과 닮았고 하여 바래봉이라 불리는 산이다. 바래봉은 봄이 여름을 향해갈 즈음이면 분홍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남원을 떠나는 허허한 마음을 꽃으로나마 채워보려 산을 오른다. 가족 유전자원시험장에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간다. 많은 이들의 발이 지나가서일까. 길이 고르다. 평지 같은 산길을 걸어 철쭉 군락지에 이른다. 지리산 능선을 병풍 삼아 핀 꽃이 둥글고 완만한 산을 물들이고 있다. 달빛이 너울거리던 눈에 연분홍 꽃불이 인다. 가슴에 몽우져 있던 마음이 하늘하늘한 꽃잎 위에 흩뿌려진다. 바람이 철쭉꽃을 건반 삼아 멋들어진 음악을 만들어낸다. 산의 울림을 들으며 생각한다. 어쩌면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산이 아닌, 달인 것은 아닐까 하고, 능선 넘기에 바빠 ‘나’라는 달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분홍 꽃을 밥 삼아 허기진 이들의 영혼을 채워주던 바래봉. 산을 뒤집어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꽃말을 가진 꽃을 한가득 담는다. 산에서 내려와 밧그레 번지던 꽃이 전한 말을 흰 지면(紙面)에 옮겨본다. 그대에 게도 꽃피는 계절이 당도할 것이다. 허니 어둠이 그대를 덮친다 해도 달빛을 벗 삼아 견고 또 걸어라. 어둠이 든 시간, 노랗고 바랄간 빛을 품고 나오며 남원에 이별을 고한다. ㉠



8 만인의총 만인의사 순의탑

NEWS BRIEFING

2019. 06.

누리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개편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16일 '2019 개정 누리과정 공청회'를 열고 누리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리과정의 성격은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임을 강조한다.

또한 유아가 충분히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우도록 하고, 교육과정 내 놀이의 범위를 확대해 교실 내 환경을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은 최소화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누리과정 개정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육과정심의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은 유아의 행복감뿐 아니라 4차 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자율·창의·융합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누리과정 개정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는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예비교원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교원양성 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의 재정 지원 대학 12개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교육 대학 6개교, 사범대학 6개교로 4년 동안 총 18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사대 교육 과정 교과목에 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시민교육 관련 주제가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한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갈등이나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교육 강좌를 신규 과목으로 개발한다.

예비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험 및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실습과 연수를 통해 실천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연구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시민교육 교육과정은 성과교류회 등을 개최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교원양성대학이 민주시민교육 우수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예비교원 시민교육 강화... 교·사대 12개교 선정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맞춤형 돌봄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 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을 포함해 총 1,319개원에서 사용 중이다.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되어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반기 388개 학급을 확충 예정이며,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간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내년 3월까지 40개원 내외의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돌봄도 확대된다.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세종 지역은 맞벌이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통합학급방식으로 저녁돌봄을 제공한다. 부산 등 야근이 많은 공단 지역은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을 지원한다. 전남 지역은 1학급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은 돌봄수요를 초등돌봄교실과 연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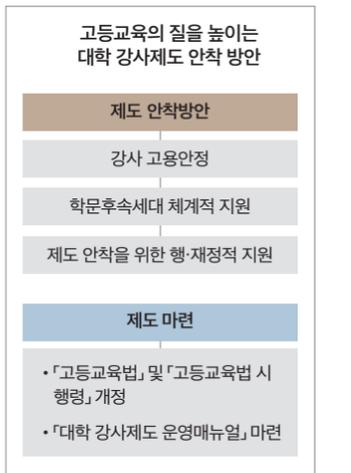
이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방안이 논의됐고, 사립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모든 시·도가 오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7년간 유예됐던 강사법(고등교육법)이 올해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새로운 강사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한다. 올해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향 중 임금 예산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한다.

학문후속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한다.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들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로 자격을 제한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편성해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한다.

강사 임용 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별·연령·사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한다.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을 배제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개임용 절차를 간소화해 대규모 신규채용 절차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②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통해 대학교육 질 개선한다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당신의 이름은 선생님입니다”] 5월호는 중등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내게 많은 생각과 공감을 하게 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막연히 교사가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5월호에 실린 여러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서 내가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나아가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모니터단 정오장

[정책 토크-스승의 날, 교권을 이야기하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하는 동시에 반대로 교사의 인권은 추락한 것이 현실이다. 패널로 참가하신 현장 교원분들이 언급하셨듯이 학교 내에는 교권을 보호할 매뉴얼과 제도가 미비하다. 어찌 보면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곧 교육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러한 교권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도 배려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모니터단 이유경

[이슈-2019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과목에 더 흥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대다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우수한 학생들이나 대도시에서 사는 학생들에게만 적합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 지역 강사 파견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원들이 양성되는 시스템이 생기길 바란다. 모니터단 이주현

EVENT

6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학술**’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2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이유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박지원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김영진 충남 서천군 기산면

발행일 2019년 6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최민석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자 한주희 양지선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변화하는 교육

10대 핵심성과 향후 추진방향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 교육부

교육 국가책임 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유치원 취원을 40% 달성('21년)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 ('19년 4월말)1,315개원 → ('20년)전체

교육 국가책임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19년 2학기 33 → 20년 고2,3 → 21년 전학년

49만명 88만명 126만명

교육 국가책임 강화

대학 학비 부담 경감

실질적 빈곤 등록금

17년 → 19년

53.5만명 68.9만명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수혜 아동

17년 → 22년

33만명 53만명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안전한 교육환경

- 모든 학교 일반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19년)
- 무석면 학교 실현(~'27년)
- 동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14,164대('18년)

미래교육 준비

학교 공간 혁신

- 학생 참여 설계로 창의·감성적 생활공간 조성
- 5년간 3조 5천억 / '19년 900억(170교)

미래교육 준비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한 자율적 혁신 추진 지원
- '19년, 일반대 5,688억, 전문대 2,908억

미래교육 준비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 연구선도학교 : ('18년) 105교 → ('19년) 354교
- 직업계고 : ('20년) 마이스터고 → ('22년) 특성화고
- 일반계고 : ('22년) 제도 도입 → ('25년) 전면실시

미래교육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정('19년)

미래교육 준비

평생학습 활성화

- K-MOOC : ('18년) 510개 → ('19년) 650개
- 한국형나노디그리 : ('18년) 10개 → ('19년) 20개